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375-01

2016. 8.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8

연구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참여자: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주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정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요 약

연구의 배경

정부는 2009년부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의 핵심 경영주체로서 확대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500개 들녘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들녘경영체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서는 들녘경영체의 운영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들녘단위의 경영으로 벼농사의 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 효과에서 나아가 이모작, 경축복합, 6차산업화등 경영의 복합화·다각화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도 들녘경영체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보면 우수사례의 경우, 들녘단위의 농작업으로 절감된 노동력의 활용, 농한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로 발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경영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들녘경영체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성과를 쌀생산비·소득 측면과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등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고, 공동경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쌀산업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실태, ② 들녘경영체 쌀생산비 비용절감효과 분석, ③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추가 소득창출 사례분석, ④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례와 외국사례 평가, ⑤ 들녘경영체 경영개선 및 단계별 발전방안 제시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통계청 쌀생산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표본조사를 통하여 공동농작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와 소득 창출 사례를 단작, 이모작 및 다각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들녘경영체 실태조사

가. 작업별 공동작업면적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쌀생산의 작업 단계별 공동작업의 비중이 많이 증대된 것은 육묘(39.4%→75.8%), 방제(45.5%→87.9%), 수확(39.4%→66.7%) 등이다.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지원 수준에서 공동작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공동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별 작업단계별 임금과 참여자 연령과 경력에 따른 전문적 담당 노동분야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들녘경영체 참여 회원간 노동력 활용과 작업단계별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작업의 범위와 경영체의 중장기적 사업수준이 결정되어야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

원을 통한 지역단위 공동농작업 효과에서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로 확장 될 수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과 함께 육묘, 방제 단계의 공동작업 비중이 높다. 향후 쌀 생산 전단계에서 공동작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경영체 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물적(시설 및 장비)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경영체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농가와 들녘경영체 쌀 생산비 및 성과 비교

들녘경영체에 농지를 위탁하고 있는 영세고령농가의 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를 지역관행과 비교하여 보면, 들녘경영체의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농작업별 작업수수료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운의 3.5%, 이앙 7.9%, ‘경운+이앙+정지’는 6.7%, 수확 7.8%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육묘와 방제는 각각 13.9%, 13.5%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필지(1,200평)당 들녘경영체의 농작업별 수수료는 지역내 평균 수수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수탁기준으로 보면, 지역내 수수료에 비하여 10.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설 및 장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육묘와 방제부문에서 생산비 절감이 달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육묘와 방제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는 1필지(40a)당 13~14% 정도 발생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오퍼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기간농가의 들녘경영체 참여전 매출액이 4억 2천만원에서 참여후 4억 7천만원으로 14.1% 소득이 증가하였다.

다. 소득창출 및 비용절감 효과

들녘경영체의 현실적 제약조건(농지분산 등)으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에 따

른 비용절감 효과는 한계가 있지만, 쌀 생산과 관련하여 육묘와 방제부문에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농가소득 다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쌀 생산에서 절감된 노동력과 농기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리, 감자 등을 추가적으로 재배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쌀 생산비 절감효과는 표본조사 결과 10~50% 정도 이지만, 노동력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농업소득 창출 효과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접적인 효과로 이모작 등으로 농지의 효율성 증대와 추가소득 창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족 농 일부가 인근 농공단지 등에 취업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는 쌀 생산비 비용절감, 노동력 절감을 활용한 추가 소득 창출(이모작, 타부문 취업 등)의 효과와 함께 고령농의 농작업 편의성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 효과 및 추가소득원 발굴과 농작업 편리성 향상으로 귀농자의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파생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15년 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별 평균 비용절감 효과 사례를 적용하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생산비 관련 비용절감 효과는 약 13.6% 수준으로 나타난다.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수준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효과로 육묘와 방제시설의 지원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절감과 노동력 절감효과가 높아 들녘경영체 참여 생산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방안

가. 예비단계: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술지원 및 범인화 유도

예비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군으로서 조직강화를 통하여 임의조직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재배단지, 작목반을 범인화를 통하여 들녘경영체로 발전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주체가 되어 교육·홍보, 농업기술의 공동화·규격화, 농기계의 공동이용, 계약재배를 통한 판매공동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들녘단위의 논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들녘단위의 조직관리를 체계화 해야 할 것이다. 들녘단위의 조직강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별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자, 비료, 등 생산관련 지원을 들녘단지로 통합을 유도하고, 농협, 가공유통업체 등과의 계약재배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동경영의 이해와 경영관리의 기초교육을 통하여 공동경영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영세한 작목반의 통합을 유도하여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세째, 조직의 애로사항을 수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직원 으로 구성된 전담 멘토를 구성하여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경영체 성립단계: 들녘경영체 인증, 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중심 지원

경영체 성립단계는 법인화를 거쳐, 경영발전계획에 대한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하여 들녘경영체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쌀을 주작목으로 주년 영농체계의 구축, 작목반의 합병을 통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경영단위를 확보하고 연간조업이 가능한 수준의 경영조직과 조직중심의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원의 참여와 규모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간작목이라 할 수 있는 쌀을 중심으로 기타 식량작물과 연계하고, 이앙, 방제, 수확등 주요농작업과 수확물의 판매 공동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및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경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들녘경영체의 경영관리가 중요한 만큼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컨설팅 지원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들녘경영체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경영내용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경영 발전단계 :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화, 복합화 경영기반 강화

경영 발전단계는 경영체 성립단계에서 수립한 경영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수립된 영농계획에서 제시된 조직화, 규

모화, 수익모델이 일정 성과를 실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인중심의 사업운영체계 확보, 사업 규모의 확대, 수익모델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성과의 확보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성과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 농기계의 이용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 노후화된 개별 소유·이용 농기계의 처분과 공동작업이 필요한 핵심적인 농기계 및 시설의 조직 중심의 소유·이용 체계, 주년 영농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수익이 실현되고 자본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하며, 이익잉여금의 일부 적립을 통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정수준 이하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시 손금처리를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경영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의 전문화, 또는 복합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자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체의 경영기반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경영 고도화 단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6차산업화 추진

경영 고도화단계는 경영발전을 통한 경영체로서 기반이 확립된 단계로서 경영체 수익증대를 벗어나 고용증대, 소득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일정 기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의 고용 및 소득창출과 연계된 6차산업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체의 지역리더로서의 역량 확보와 함께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농업인턴제도를 활용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6차산업화 관련 시설 장비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도적인 들녘경영체에 대하여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만이 아니라 6차산업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및 방법	3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5. 연구결과 활용방안	12

제2장 여건변화와 정책 추진현황

1. 쌀 산업 동향과 사회경제적 변화	13
2.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추진 현황	31

제3장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비 분석

1. 조사 개요	35
2. 들녘경영체의 경영실태	36
3. 소득창출 및 비용절감 효과	54
4. 시사점	58

제4장 경영유형별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와 시사점

1. 들녘경영체의 구조와 유형구분	61
2. 유형별 우수사례	64
3. 들녘경영체 유형별 시사점	71

제5장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사례 분석

1. 배경 및 추진경과 73
2. 기본구상 75
3. 사업 추진 실태와 성과 78

제6장 일본의 JA출자에 의한 집락영농 사례

1. JA출자형 농업법인 현황 86
2. JA출자형 농업법인의 경영과제 88

제7장 들녘경영체의 육성 및 사업개선 방향

1. 기본방향 90
2. 들녘경영체 단계별 발전모형과 육성방안 92

부록 1. 일본의 쌀 생산비 절감 실태 109

부록 2. 주요 들녘경영체 특성 116

부록 3. 단계별 사업계획(예시) 147

표 차 례

제2장 주요 연구결과

표 2- 1. 쌀 생산량, 재배면적 및 단수의 변이계수	16
표 2- 2. 경작규모별 농가 현황(2000-2010)	18
표 2- 3. 경작규모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년)	20
표 2- 4. 전·겸업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	21
표 2- 5. 경작규모에 따른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현황(2010년 기준) ..	23
표 2- 6.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현황	25
표 2- 7. 10a당 수익성	26
표 2- 8. 논벼 수확농가의 연령대별 농가수 변화추이	28
표 2- 9.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대별 비교(2014년)	29
표 2-10. 연도별 들녘경영체 지원현황(2016년 현재)	33
표 2-11. 연도별 들녘경영체 재정 지원현황(2016년 현재)	34

제3장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비 분석

표 3- 1. 조사지역	36
표 3- 2.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임차면적 추이	42
표 3- 3. 들녘경영체 참여후 이모작 현황	42
표 3- 4. 이모작 유형별 증감면적	43
표 3- 5.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공동작업 비율 변화	45
표 3- 6.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주요 생산비 분석	46
표 3- 7. 주요 항목별 참여 전후 비용 절감효과	47
표 3- 8. 들녘경영체와 지역내 작업단계별 수수료 비교	48
표 3- 9. 들녘경영체 조사 표본농가 평균매출액	49
표 3-10. 2015년산 논벼(쌀) 소득 및 주요 생산비	50

표 3-11.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조수입	50
표 3-12.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생산비	51
표 3-13.	지역농협 주도 완전수탁 도입시 비용절감 효과	51
표 3-14.	들녘경영체 이모작 파급효과(예시)	52
표 3-15.	들녘경영체 다각화 파급효과(예시)	52
표 3-16.	들녘경영체 단계별 효과(예시)	53
표 3-17.	대규모 쌀농가 생산비(전국평균과 5ha 들녘경영체 참여표본 농가) ...	53
표 3-18.	노동력 절감에 따른 추가 농업소득 창출 사례	55
표 3-19.	2015년 전국 쌀생산비	56
표 3-2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비용절감 효과	57

제4장 경영유형별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와 시사점

표 4-1.	들녘경영체의 유형별 경영특성	62
--------	-----------------------	----

제5장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사례 분석

표 5- 1.	경북형 마을영농 실시 현황	81
---------	----------------------	----

제6장 일본의 JA출자에 의한 집락영농 사례

표 6- 1.	JA 출자형 농업생산법인 중 수전경영 규모별 법인 수 구성비	87
---------	-----------------------------------	----

제7장 들녘경영체의 육성 및 사업개선 방향

표 7- 1.	경영발전 단계별 경영모형	93
표 7- 2.	예비단계의 들녘경영체 육성체계	95
표 7- 3.	들녘경영체 선정 기준	96
표 7- 4.	들녘경영체 전문화·복합화지원 선정 기준	97
표 7- 5.	들녘경영체 경영고도화지원 선정 기준	98
표 7- 6.	들녘경영체의 논 이용율 제고 및 타작물 활성화 방안	99
표 7- 7.	붕황농협 모델 사례	104
표 7- 8.	항목별 평가지표	106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그림 1- 1. 연구추진 체계도	6
-------------------------	---

제2장 주요 연구결과

그림 2- 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14
그림 2- 2.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단수 추이	15
그림 2- 3. 쌀 소비량 변화	17
그림 2- 4. 쌀 재고량 변화	17
그림 2- 5. 경작규모별 농가 변화	19
그림 2- 6. 전·겸업별 농가 변화 추이	22
그림 2- 7. 전·겸업별 논 면적 변화 추이	22
그림 2- 8. 규모별 경영주 연령 분포	24
그림 2- 9.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25
그림 2-10. 재배규모별 생산비 추이	27
그림 2-11. 농촌의 고령화 실태	30

제3장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비 분석

그림 3- 1. 쌀 생산 등 경영체 설립연도	37
그림 3- 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참여연도	38
그림 3- 3. 들녘경영체 참여기간	39
그림 3- 4. 들녘경영체의 지대별 위치	40
그림 3- 5. 들녘경영체 경영유형	40
그림 3- 6.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논 면적 추이	41
그림 3- 7.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 차이	48

제4장 경영유형별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와 시사점

그림 4- 1. 조직유형의 규정구조 62

제5장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사례 분석

그림 5- 1. 마을영농의 개념도 75

그림 5- 2. 마을영농 조직화 시스템 76

그림 5- 3. 마을영농 발전모델 76

제6장 일본의 JA출자에 의한 집락영농 사례

그림 6- 1. JA출자형 농업생산법인의 종류와 추이 87

그림 6- 2. JA출자형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분야(전체:274, 복수응답) 88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정부는 2009년부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의 핵심 경영주체로서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임.
 -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500개 들녘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서는 들녘경영체의 운영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그동안 사업의 추진실태 및 육성방안 관련 조사분석이 추진된 바 있으나 사례중심의 분석에 그치고 있음.
 - 들녘경영체의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들녘경영체의 운영효과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경영 개선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단순히 들녘단위의 경영으로 벼농사의 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 효과에서 나아가 이모작, 경축복합, 6차산업화등 경영의 복합화·다각화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도 들녘경영체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보면 우수사례의 경우, 들녘단위의 농작업으로 절감된 노동력의 활용, 농한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로 발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경영성과를 실현하고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성과를 쌀생산비·소득 측면과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등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고, 공동경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2. 연구목적

- 들녘경영체의 경영유형별 쌀 생산비 절감효과 및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소득증대효과 분석을 토대로 들녘경영체 발전단계별 공동경영 효과 제고 방안 제시
 - 쌀 생산비 절감효과 분석
 - 들녘경영체 사업 복합화 및 다각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대효과 분석
 - 들녘경영체 발전단계별 효과 제고방안 제시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쌀 생산비 및 농업소득 분석체계 검토
 - 통계청의 쌀 생산비 및 농업소득 조사 항목별 조사방법 검토
 - 들녘경영체 쌀 생산비 및 농업소득 조사 추진방안

- 들녘경영체 쌀생산비 비용절감효과 분석
 - 통계청 쌀 생산비 지대별, 규모별 분석
 - 들녘경영체 쌀 생산비 분석
 - 통계청 쌀 생산비 및 들녘경영체 생산비 비교
 - 우리나라 쌀 생산비와 일본의 쌀 생산비 비교 및 정책 사례분석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분석
 - 우수사례의 쌀생산비 비목별 절감요인 분석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소득분석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사업참여 전·후의 농업소득원 및 소득분석
 - 경영유형별(벼단작, 이모작, 경축복합, 경영다각화등) 소득분석
 - 경영유형별 우수사례 분석: 경영성과와 요인

-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사례분석
 - 마을영농육성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 마을영농의 유형별 경영형태
 -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검토

- 들녘경영체 경영개선 및 단계별 발전방안
 - 들녘경영체 경영성과 제고방안
 - 들녘경영체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3.2. 연구방법

- 통계청 쌀생산비 조사·분석체계 검토
 - 통계청 조사 항목별 조사요령 검토
 - 전문조사업체와 들녘경영체 조사표 검토

- 통계청 쌀생산비 자료 분석
 - 쌀생산비 비목별 동향분석
 - 전체 및 5ha 이상 농가의 쌀 생산비 자료분석
 - 지대별 도별 쌀생산비 자료분석
 - 쌀 농업소득 자료분석

- 들녘경영체 표본조사
 - 조사대상: 2015년 현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체
 - 조사기관
 - 농업조사전문업체 선정 위탁조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지원

- 들녘경영체 쌀 생산비 절감효과 분석
 - 들녘경영체 구성 전·후의 쌀 생산비 절감부문 및 효과
 - 조합원표본농가 면접조사
 - 통계청 쌀 생산비와 들녘경영체 생산비 비교분석
 - 통계청 자료와 들녘경영체 조사자료 비교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소득분석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표본조사
 - 벼농사 소득은 생산비조사 참조, 농진청 표준소득자료 참조

- 사례조사
 - 쌀생산비 비용절감 및 소득증대 우수사례조사
 - 경북형 마을영농추진실태 및 우수사례조사
 - 일본의 집락영농 추진 사례

3.3. 연구팀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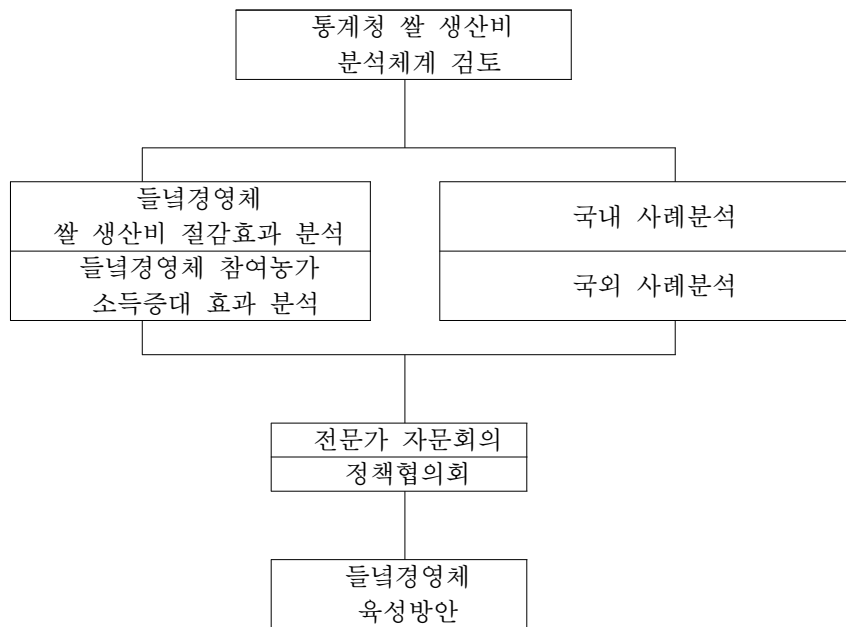
- 들녘경영체 생산비 및 소득조사
 - 농촌경제연구원과 조사전문업체 공동

- 통계청 지대별 표본농가와 들녘경영체의 쌀 생산비 비교
 - 농촌경제연구원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및 경북형마을영농사업 사례분석
 - 농촌경제연구원

- 들녘경영체 경영개선 및 단계별 발전방안
 - 농촌경제연구원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4.1. 국내 연구동향

- 쌀 농업 경영체 및 조직화와 관련한 연구는 비용절감방안과 관련한 연구 또는 전업농 육성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모화·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김정호 외(1998) 「쌀 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델 과 지역시스템 개발」 연구는 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쌀 농업의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단위(RPC)의 효율적인 쌀 농업 시스템 구축방안으로서 RPC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계열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박문호 외(2000)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 모형과 정책방향」에서는 토지

이용형 농업을 대상으로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의 연계성 강화, 지역농업에 대응한 경영모형의 수립, 지역영농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하여 100ha이상 조직화된 조직 및 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 도입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대규모 조직경영체의 경영성과 및 모델개발 연구가 확산되고 있음.
 - 조가옥 외(2008) 「쌀 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자체의 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들녘별 맞춤형 최적 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박문호 외(2011)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에서는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조직화의 목적과 범위, 경영통합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음.
 - 조가옥 외(2012)는 「지역 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조가옥 외(2014)는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에서 정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모델, 단계별 육성체계와 관련한 연구가 추진되었음.
- 한편, 쌀의 공급과잉문제가 만성적 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급전망의 전제하에 논농업의 소득기반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논농업다양화정책」의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음.
 - 장민기 외(2010)은 「논농업다양화방안」에서는 논농업 다양화 단지 육성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및 논농업 진흥계획수립, 농가소득안정, 유통수급대책, 제도개선등 핵심과제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부에서도 논 농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2012년간 “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을 통하여 논에 타 작목 전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사업추진 상의 제 문제로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기 종료된바 있음.

4.2. 농촌진흥청의 관련사업 추진계획

□ 고품질 쌀 생산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들녘중심(50ha 이상)의 고품질 쌀 생산 공동경영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범단지 대상
 - * '15년 시범사업 현황 : 국비 125개소, 지방비 875
- [지원체계] 지방자치단체별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공동경영체 단계별 육성 전략 수립 등 업무 총괄
 - * 농진청-기술원-센터 공동경영체 육성 방안 업무협의회 개최(2월)
 - (농협) 농기계임대, 농자재공동 구입, 용자 등 지원
 - (RPC) 공동경영체와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물 판매·유통 지원
 - (공동경영체) 자체규약제정 등 공동운영체 결성 운영
 - * 들녘활용계획 수립, 종자 및 자재 구입, 단계별 공동농작업, 농기계 활용 등
- [육성전략] 단순작업에서 단일영농계획수립까지 단계별 육성
 - 발전수준 등 여건에 따라 기초단계에서 시범단계로 2단계 육성

	기초단계	시범단계
공동경영 수준	○ 일부 농작업 공동 수행 (종자확보, 이앙, 방제, 육묘 등)	○ 단일영농계획 수립(영농일정, 재배방법, 출하 및 판매 등) ○ 잉여 노동력 활용 등
지원방안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 농기계 임대 은행 활용, 시범사업기자재 지원	○ 들녘경영체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장비 등 생산기반 조성 지원

□ 생산비 절감형 기술보급 계획

- 앵미발생 등 직파재배 확대제약 기술 조기 해결

- 앵미 발생을 방제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화학적·생태적 방법
 - 항공파종, 담수직파 등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직파기술 재정립
 - 벼 무논직파 동시 축조시비 기술 보급 추진
 - 비료이용률 증대, 시비 노력비 절감 등 신기술접목
 - 작업단계별 시범농가 교육 및 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 입모율 향상, 잡초체계처리, 시비 노력 절감 등 시범요인 평가
 - 기 개발되어 있으나 기술완성도가 낮은 무경운직파, 항공직파 개발 촉진
 - 국내 개발기술(민간, 농진청) 및 외국 사례 복합 검토 등
- 파종상 비료 등 기계이양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 파종상 비료 : ('13) 3천ha → ('19) 50 → ('24) 150

4.3. 일본의 정책동향

□ 쌀산업정책

- 일본정부는 쌀정책 개편을 통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경작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전업농의 쌀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쌀정책 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전업농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인화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므로 2010년 기준 12,511개인 법인수를 향후 2023년까지 4배 수준인 50,000개까지 확대.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활용 등을 통해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하여 니나이테(주업농, 후계자, 법인경영, 마을영농)의 경작면적이 전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의 48.7% 수준에서 2023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신설, 농업위원회의 개혁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중개의 활성화, 농지 기반정비 확충, 니나이테의 농지 단지화 지원강화
- 또한,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자재, 유통면에서의 비용 삭감 등을 통해 전업농의 쌀생산비(2013년 기준 16,000엔/60kg)를 쌀 관세 철폐를 대비하여 2023년까지 40% 삭감된 수준(9,600엔/kg)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직파재배 및 ICT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다수확품종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농지규모화·단지화 촉진
-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확대하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통해 2013년의 생산량과 비교하여 사료용 쌀은 10배(11만톤→110만톤), 쌀가루용 쌀은 5배(2만톤→10만톤)까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1)
 -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식용쌀에 대한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주식용쌀의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완화시켜 2025년 기준 주식용쌀을 752만 톤 생산 계획
 - 이는 2013년의 주식용쌀 생산량 818만 톤보다 약 8.1% 감소

□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

- 1960년대 후반: 집락영농 태동
 - 몇 개의 현에서 집락영농의 조직화를 지원하면서 비롯. 소규모 겸업농 중심지역 및 중산간지역에서 집락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이 설립.
- 1990년대: 중앙정부 정책추진. 경영체의 보완조직으로 육성
 - 집락영농의 확산을 바탕으로 집락영농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

1) 일본 농림수산성(2015), 「제4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 19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신농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체」에 개별경영체와 집락영농을 포함한 조직경영체의 양립방향 제시.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집락영농을 「과도적 존재」로서 위치 설정, 대구확포장정비로 농지집적(30%이상)의 요건으로 조직화 지원(기계설비 90% 보조), 소수 니나이테 중심의 전작수탁조직이 설립(전작지의 단지화)등 집락영농 지원시책 개발.
- 2000년대: 제도적으로 경영체로서 육성
- 몇가지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을 니나이테(담당자)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경영주체로서 명확히 함.
 - 2002년 「쌀정책대강», 2004년 「쌀 정책개혁」에 집락영농 중 일원적 경리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내 법인화 하는 등의 요건을 전제로 「집락경영체」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한편, 정책적 육성을 도모.
 - 2005년부터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집락영농실태조사」에 의한 집락영농 통계사업이 실시되고, 2007년 이후 논농업 정책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경영체», 「집락경영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특히, 2007년 「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에서 20ha이상의 규모요건을 갖춘 조직체를 「집락경영체」로 인정하고, 집락영농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집락영농이 급증
 - 2007년 정책의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한 시책이 과도한 드라이브로 정책 왜곡을 유발하는 문제제기
 - 2011년의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규모요건을 철회하는 대신, 쌀에서의 전작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게 되면서, 전작을 중심으로 한 집락영농이 증대. 호별 소득보상제도상의 집락영농 우대조치를 신설하여 집락영농에 참여할 경우 「10a 공제」 면제 혜택을 부여, 집락영농 참여농가가 소득향상효과를 가져옴.

- 현 단계의 경영체 정책방향은 인정농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추진, 농업 경영의 법인화 촉진,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추진으로 함축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장래 인정농업자로 예상되는 「인정 신규취농자」, 장래 법인화하여 인정농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락 영농」에 대하여 중점적인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
 -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의 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용자, 세제등 경영발전의 단계 및 경영의 상태에 따라 지원시책 추진, 또한 구조개혁의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경영발전에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검증을 실시,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함. 집락영농을 포함한 육성대상 경영체 즉,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경영여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5. 연구결과 활용방안

5.1. 기대효과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들녘경영체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의 창출 효과 등 경영개선의 방안 제시

5.2. 활용방안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정책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단계별 발전모형의 기초자료

제 2 장

여건변화와 정책 추진현황

1. 쌀 산업 동향과 사회경제적 변화

1.1.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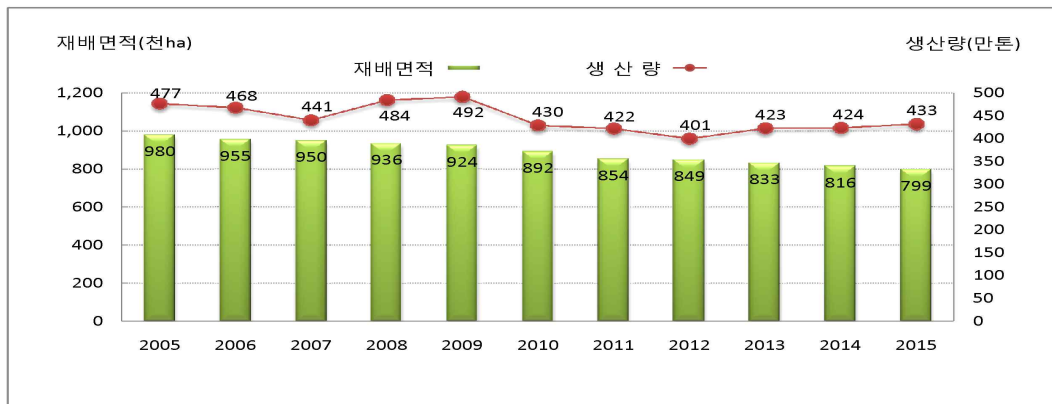
1.1.1. 생산량

-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음. 재배면적은 2014년 816천 ha에서 2015년 79만 9천 ha로 2% 감소하였고, 평균수량(단수)은 2014년 520kg에서 2015년 542kg으로 약 4.2% 증가하였음.
 - 재배면적: ('14) 816,506 → ('15) 799,344ha(-2.0%)
 - 10a당 생산량: ('14) 520 → ('15) 542kg(4.2%, 평년 496kg)
 - 총 생산량: ('14) 4,241 → ('15) 4,327천 톤(2.0%, 평년 3,965천 톤)
- 쌀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량 감소와 생산의 정체 등으로 구조적인 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수확기 쌀 가격의 하락 문제도 있음. 생산과 소비의 부조화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생산비의 절감과 적정 생산량 유지 등으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목 재배를 통한 소득 창출의 노력이 필요함.

- 2015년 쌀 재배면적은 건물건축, 택지개발, 밭작물 재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79만 9천 ha이지만, 10a당 쌀 생산량은 생육전반에 걸친 기상여건 양호와 병충해 영향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542kg 증가

그림 2-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 논벼 단수는 역대 최대인 10a당 542kg으로 전년보다 22kg 증가, 최근 최대 풍작이었던 2009년산보다 수확이 8kg 증가, 재배면적 감소에도 단수가 크게 늘어나 2015년산 쌀 생산량은 432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8만 6천 톤 증가

그림 2-2.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단수 추이



자료: 통계청(1990~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6.

- 2004년 양정개혁을 기점으로 기준으로 재배면적과 단수의 변이계수를 보면, 양정개혁 이전인 1990~2003년 동안의 쌀 생산량 변이계수는 6.59%인 반면, 이후 변이계수는 7.54%로 변동 폭이 커져 쌀 생산의 불확실성이 확대
 - 양정개혁 이전의 재배면적 변이계수는 6.03% 이지만, 이후 변이계수는 6.94%로 쌀 재배면적 변동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 단수는 동 기간 동안 변이계수가 6.45%에서 4.23%로 감소하여 쌀 생산성의 불확실성은 감소함.
 -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로 재배면적에 대한 변이계수는 증가하였지만, 단수는 기술발전과 영농 규모화, 기상조건, 정책적 지원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20142)

2) 쌀 산업 여건변화 등에 대한 기초자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쌀 소득보전직접 지불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표 2-1. 쌀 생산량, 재배면적 및 단수의 변이계수

구 분	1990~2003년			2004~2014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쌀 생산량 (천 톤)	5,153	339	6.59%	4,510	340	7.54%
쌀 재배면적 (천 ha)	1,097	66	6.03%	908	63	6.94%
단수 (톤/ha)	4.70	0.30	6.45%	4.97	0.21	4.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1.1.2. 소비량

- 국내 소비자의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 특히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는 쌀 생산량의 감소 추세보다 빠름.
 - 1997~2013년 동안 쌀 생산량은 연평균 1.48% 감소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45% 감소함.
- 현재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생산성(단수) 향상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재고량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1인 가구와 쌀 대체식품 소비 증가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
 - 1990년대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3%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2.6% 감소, 소비량 감소폭은 확대 추세
- 2015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63.5kg로 감소, 식용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27만 2천 톤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그림 2-3. 쌀 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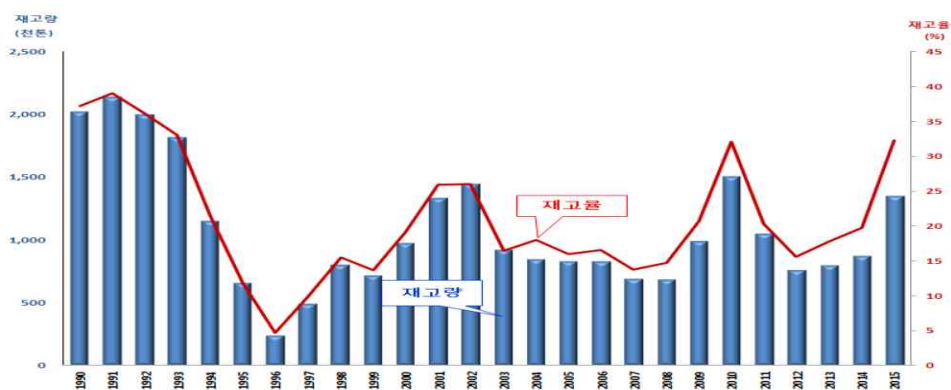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1990~2014), 농업관측센터(2015).

1.1.3. 재고량

- 최근 3년 연속 풍작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5양곡연도 기말재고량은 135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하여 기말재고율은 32.3%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그림 2-4. 쌀 재고량 변화



주: 재고율=기말재고량/총수요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1990~2014), 농업관측센터(2015).

1.2. 쌀 재배 농가 실태

1.2.1. 규모별 농가와 경작면적

- 농가실태 분석은 전국을 전수조사하여 공표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함. 전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2000년 약 108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약 78만 가구로 36.7%가 감소
 - 규모별 농가 현황에서 2010년 기준 1.0ha 미만의 논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약 58만 가구로 전체 농가 중 73.4%
 - 면적이 0.5ha 미만 수준의 영세농가가 약 37만 가구로 전체 47.1%이고, 0.5~1.0ha 수준의 농가가 약 21만 가구로 전체 26.3%임.

표 2-2. 경작규모별 농가 현황(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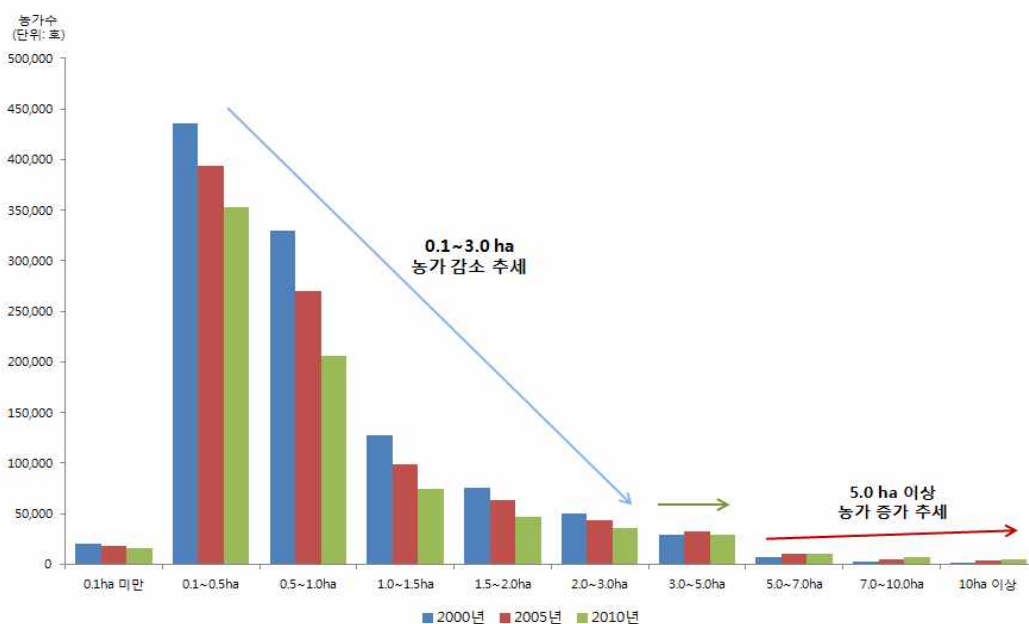
경작규모	2000년		2005년		2010년	
	농가(호)	비중(%)	농가(호)	비중(%)	농가(호)	비중(%)
0.1ha 미만	19,730	1.8	18,579	2.0	16,257	2.1
0.1~0.2	106,932	9.9	102,550	10.9	101,039	12.9
0.2~0.3	102,806	9.5	91,274	9.7	85,891	11.0
0.3~0.5	226,128	21.0	199,598	21.3	165,724	21.1
0.5~0.7	159,826	14.8	133,679	14.2	104,363	13.3
0.7~1.0	169,870	15.8	136,892	14.6	101,914	13.0
1.0~1.5	127,352	11.8	98,299	10.5	74,824	9.5
1.5~2.0	75,056	7.0	62,815	6.7	46,981	6.0
2.0~2.5	28,366	2.6	23,128	2.5	19,797	2.5
2.5~3.0	21,512	2.0	20,264	2.2	16,209	2.1
3.0~5.0	29,349	2.7	32,614	3.5	28,908	3.7
5.0~7.0	7,100	0.7	10,145	1.1	10,413	1.3
7.0~10.0	3,042	0.3	5,166	0.6	6,495	0.8
10.0ha 이상	1,373	0.1	3,133	0.3	5,030	0.6
합계	1,078,442	100.0	938,136	100.0	783,845	100.0

주: 2005-2010년 자료는 논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 쌀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우 규모화와 전업화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ha 미만이 전체에서 73.4%를 차지하고 있음. 규모의 확대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들녘단위 중심으로 영농작업의 편의성 제공과 함께 다양한 소득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단위 농업생산의 구축이 필요함.

그림 2-5. 경작규모별 농가 변화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 2010년 규모별 논 면적이 1.0ha 미만인 농가가 73.4%이지만, 규모가 1ha 이상인 농가에 전체 논의 79.8%가 편중되어 있음.
 - 경작규모별 농가 수 대비 논 면적의 양극현상은 2000년과 비교해 더욱 심화

표 2-3. 경작규모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년)

경작규모	2000년				2010년			
	농가 (호)	비중(%)	논 면적 (ha)	비중(%)	농가 (호)	비중(%)	논 면적 (ha)	비중(%)
0.1ha 미만	19,730	1.8	1,688	0.2	16,257	2.1	1,340	0.2
0.1~0.2	106,932	9.9	18,034	1.8	101,039	12.9	16,635	2.0
0.2~0.3	102,806	9.5	26,871	2.7	85,891	11.0	22,256	2.6
0.3~0.5	226,128	21.0	90,741	9.1	165,724	21.1	37,276	4.4
0.5~0.7	159,826	14.8	97,680	9.8	104,363	13.3	28,055	3.3
0.7~1.0	169,870	15.8	148,412	14.9	101,914	13.0	63,567	7.6
1.0~1.5	127,352	11.8	159,273	16.0	74,824	9.5	88,858	10.6
1.5~2.0	75,056	7.0	132,903	13.3	46,981	6.0	93,226	11.1
2.0~2.5	28,366	2.6	63,938	6.4	19,797	2.5	82,728	9.8
2.5~3.0	21,512	2.0	58,954	5.9	16,209	2.1	44,504	5.3
3.0~5.0	29,349	2.7	111,519	11.2	28,908	3.7	112,847	13.4
5.0~7.0	7,100	0.7	42,315	4.2	10,413	1.3	104,267	12.4
7.0~10.0	3,042	0.3	25,614	2.6	6,495	0.8	54,946	6.5
10.0ha 이상	1,373	0.1	20,616	2.1	5,030	0.6	89,492	10.7
합계	1,078,442	100.0	998,558	100.0	783,845	100.0	839,997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2. 전·겸업별 농가 현황

- 농가의 가구원이 모두 논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2000년 약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7.0%에서 2010년에는 약 44만 가구로 비중이 55.5%로 감소, 논 농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 수는 감소
 - 겸업농가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보다 높은 2종 겸업농가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와 논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농업 이외의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농가와 논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2-4. 전·겸업별 농가 및 논 면적 현황(2000-2010)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농가수 (호)	논 면적 (ha)	농가당 논 면적 (ha/호)	농가수 (호)	논 면적 (ha)	농가당 논 면적 (ha/호)	농가수 (호)	논 면적 (ha)	농가당 논 면적 (ha/호)
전업	722,295 (67.0)	698,587 (70.0)	0.97	608,159 (64.8)	647,628 (68.3)	1.06	435,212 (55.5)	449,651 (53.5)	1.03
겸업	356,147 (33.0)	299,971 (30.0)	0.84	329,977 (35.2)	300,717 (31.7)	0.91	348,633 (44.5)	390,345 (46.5)	1.12
1종 겸업	183,432 (17.0)	206,190 (20.6)	1.12	127,124 (13.6)	179,383 (18.9)	1.41	141,698 (18.1)	264,378 (31.5)	1.87
2종 겸업	172,715 (16.0)	93,780 (9.4)	0.54	202,853 (21.6)	121,334 (12.8)	0.60	206,935 (26.4)	125,967 (15.0)	0.61
합 계	1,078,442 (100.0)	998,558 (100.0)	0.93	938,136 (100.0)	948,345 (100.0)	0.75	783,845 (100.0)	839,996 (100.0)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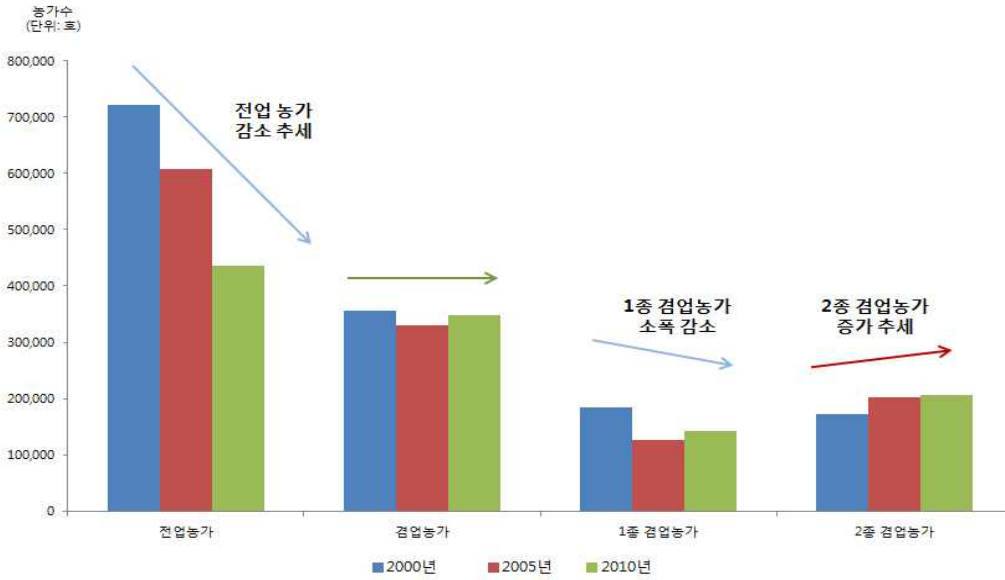
주1: 2005-2010년 자료는 논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수치이며, 괄호 안 수치는 비중을 의미

주2: 전업농가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는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의미

주3: 1종 겸업농가는 농업수입이 농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 겸업농가는 농업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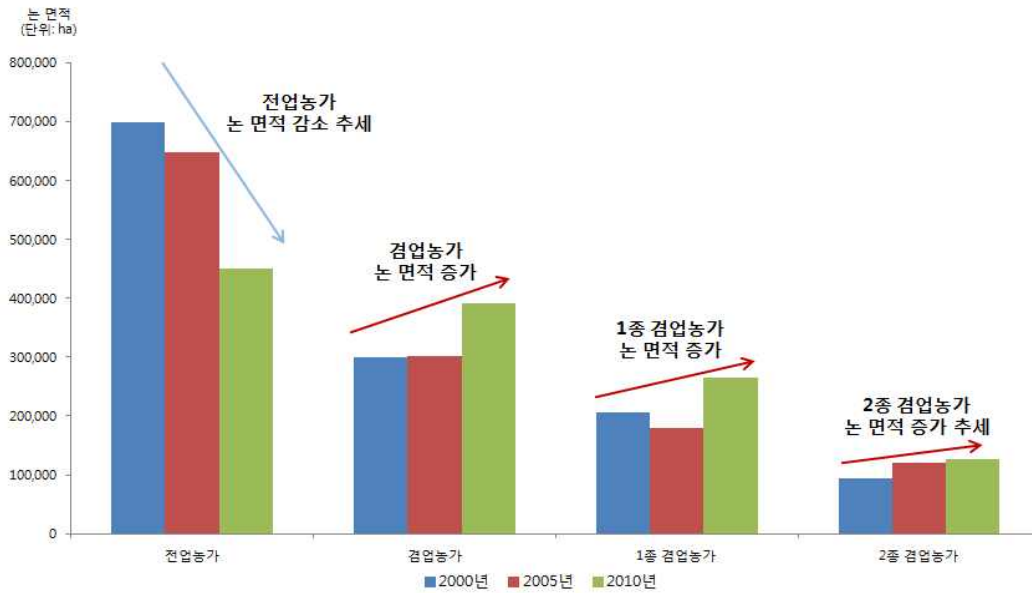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그림 2-6. 전·겸업별 농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그림 2-7. 전·겸업별 논 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3. 경영주 연령별 현황

- 전체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농가가 501,781가구로 약 62.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5. 경작규모에 따른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현황(2010년 기준)

단위: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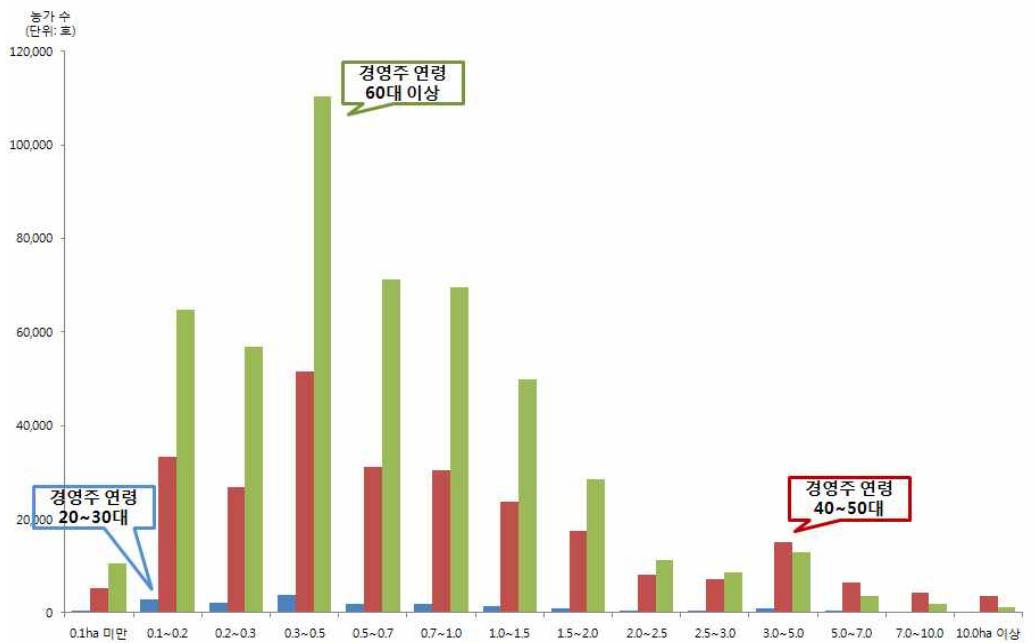
경작규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0.1ha 미만	21 (0.1)	438 (2.7)	1,758 (10.8)	3,417 (21.0)	4,435 (27.3)	6,188 (38.1)	16,257 (100.0)
0.1~0.2	118 (0.1)	2,865 (2.8)	11,819 (11.7)	21,427 (21.2)	27,805 (27.5)	37,005 (36.6)	101,039 (100.0)
0.2~0.3	93 (0.1)	2,071 (2.4)	9,081 (10.6)	17,798 (20.7)	24,921 (29.0)	31,927 (37.2)	85,891 (100.0)
0.3~0.5	172 (0.1)	3,720 (2.2)	17,087 (10.3)	34,434 (20.8)	49,128 (29.6)	61,183 (36.9)	165,724 (100.0)
0.5~0.7	99 (0.1)	1,923 (1.8)	9,660 (9.3)	21,403 (20.5)	32,384 (31.0)	38,894 (37.3)	104,363 (100.0)
0.7~1.0	75 (0.1)	1,870 (1.8)	9,048 (8.9)	21,322 (20.9)	33,489 (32.9)	36,110 (35.4)	101,914 (100.0)
1.0~1.5	71 (0.1)	1,265 (1.7)	6,618 (8.8)	17,077 (22.8)	26,460 (35.4)	23,333 (31.2)	74,824 (100.0)
1.5~2.0	49 (0.1)	914 (1.9)	4,896 (10.4)	12,595 (26.8)	16,840 (35.8)	11,687 (24.9)	46,981 (100.0)
2.0~2.5	18 (0.1)	414 (2.1)	2,191 (11.1)	5,973 (30.2)	7,217 (36.5)	3,984 (20.1)	19,797 (100.0)
2.5~3.0	18 (0.1)	372 (2.3)	1,985 (12.2)	5,249 (32.4)	5,873 (36.2)	2,712 (16.7)	16,209 (100.0)
3.0~5.0	61 (0.2)	845 (2.9)	4,396 (15.2)	10,767 (37.2)	9,448 (32.7)	3,391 (11.7)	28,908 (100.0)
5.0~7.0	24 (0.2)	362 (3.5)	2,060 (19.8)	4,363 (41.9)	2,792 (26.8)	812 (7.8)	10,413 (100.0)
7.0~10.0	14 (0.2)	267 (4.1)	1,397 (21.5)	2,964 (45.6)	1,442 (22.2)	411 (6.3)	6,495 (100.0)
10.0ha 이상	16 (0.3)	286 (5.7)	1,255 (25.0)	2,306 (45.8)	885 (17.6)	282 (5.6)	5,030 (100.0)
합 계	851 (0.1)	17,644 (2.2)	83,412 (10.6)	181,457 (23.1)	243,522 (31.0)	258,259 (32.9)	785,145 (100.0)

주: 괄호 안 수치는 가로 합계 비중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농림축산식품부 2014.

- 농가구조는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고령농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경작 규모가 3.0ha 미만인 농가에서는 경영주 연령이 60대 이상이 농가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ha 이상의 농가에서는 경영주 연령이 40~50대인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규모별 경영주 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농림축산식품부 2014.

1.3. 쌀 생산비 현황

- 10a당 논벼 생산비는 69만1,869원으로 2014년보다 4.1% 감소
 - ('14) 721,478원 → ('15) 691,869원(-4.1%)
 - 비료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농구비, 노동비, 토지용역비 등이 감소

표 2-6.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현황

단위: 원, %, kg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 10a당 논벼 생산비	628,255	712,523	725,666	721,478	691,869
- 증감률	2.3	13.4	1.8	-0.6	-4.1
□ 10a당 토지용역비	227,426	239,054	252,661	251,841	244,072
- 증감률	6.0	5.1	5.7	-0.3	-3.1
□ 10a당 쌀 생산량1)	496(482)	473(460)	508(495)	520(506)	542(527)
- 증감률	2.7	-4.6	7.4	2.4	4.2
농가판매가격지수(미국)2)	111.6	119.2	124.5	120.4	112.7

주: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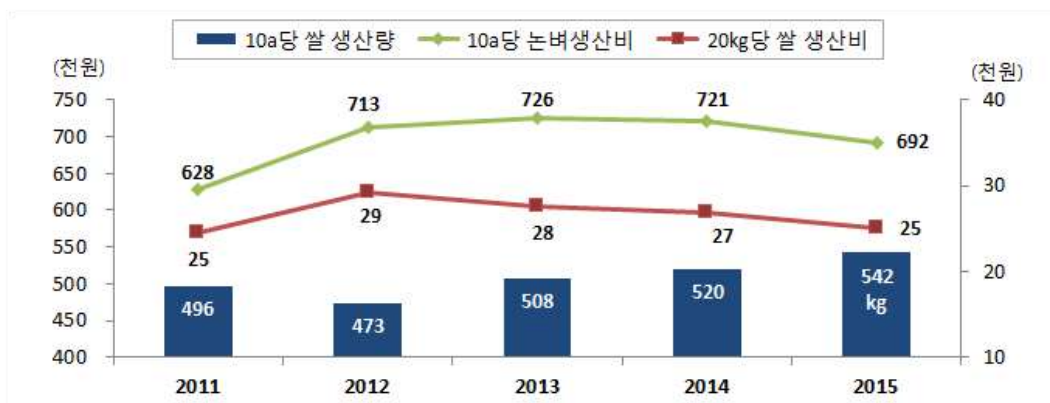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0)

1.3.1. 쌀 생산비 추이

○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11년 이후 산지 쌀값 상승으로 토지용역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를 지속하였지만, 2014년 이후 토지용역비 감소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용역비 감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있음.

- 산지쌀값(천원, 20kg): ('11) 38.5 → ('12) 41.5 → ('13) 43.8 → ('14) 42.3 → ('15) 39.5

그림 2-9.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1.3.2. 10a당 논벼 수익성

- 2015년 10a당 총수입은 99만3,903원으로 2014년 대비 감소
 - 단수는 증가하였지만,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전년보다 6.1% 감소
- 10a당 순수익은 30만2,034원으로 생산비가 감소(-4.1%)하였으나, 총수입 또한 감소(-6.1%)함에 따라 전년대비 10.3% 감소
 - 10a당 소득은 56만966원으로 전년대비 8.8% 감소

표 2-7. 10a당 수익성

단위: 원, kg,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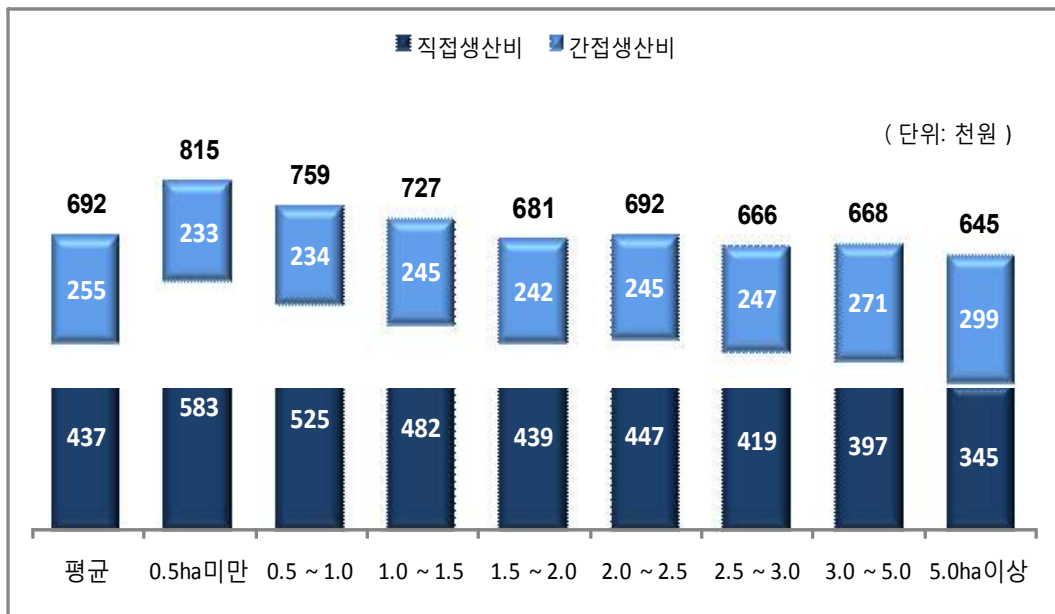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 총 수 입 (a)	1,058,090	993,903	-64,188	-6.1
○ 주산물 수입	1,024,219	960,265	-63,954	-6.2
- 10a당 쌀생산량1)	520	542	22	4.2
- 농가 쌀 판매단가	1,970	1,772	-198	-10.0
○ 부산물 수입	33,871	33,638	-233	-0.7
□ 생 산 비 (b)	721,478	691,869	-29,610	-4.1
○ 내 급 비	278,605	258,932	-19,672	-7.1
- 자가 노동비	157,468	148,098	-9,370	-6.0
□ 경 영 비 (c)	442,873	432,936	-9,937	-2.2
□ 순 수 익 (a)-(b)	336,612	302,034	-34,578	-10.3
○ 순수익률	31.8	30.4	-1.4p	
□ 소 득 (a)-(c)	615,217	560,966	-54,250	-8.8
○ 소득률	58.1	56.4	-1.7p	
농가판매가격지수(미곡2)	120.4	112.7	-7.7	-6.4

자료출처: 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0)

1.3.3. 10a당 논벼 생산비 구조

- 10a당 논벼 직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하락
 - 규모화 된 농가는 기계화 등으로 위탁영농비가 적게 지출
 - 간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증가,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불 임차료가 높아 토지용역비가 증가한데 기인

그림 2-10. 재배규모별 생산비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1.3. 농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 농촌지역은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에 따른 농업경영 활동 저하, 소득저하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

- 세계화 등으로 농업 내부의 소득이 감소하고, 경영인력의 고령화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지역공동체 유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고령농의 농업생산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단위 중심의 공동영농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업노동력 부족과 개인영농의 애로사항을 공동영농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마을) 단위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유지가 더욱더 필요함.

표 2-8. 논벼 수확농가의 연령대별 농가수 변화추이

단위: 호

구분	전체 농가		논벼 수확농가	
	2010	2014	2010	2014
전국	1,177,318	1,120,776	777,467	676,257
30대 이하	33,143	9,947	18,290	5,045
40대	140,479	82,329	82,520	44,603
50대	287,139	252,507	179,560	144,210
60대	352,427	331,083	241,403	200,602
70대 이상	364,130	444,910	255,694	281,799
(65세 이상)	545,748	624,302	382,430	393,608
전국	100.0%	100.0%	100.0%	100.0%
30대 이하	2.8%	0.9%	2.4%	0.7%
40대	11.9%	7.3%	10.6%	6.6%
50대	24.4%	22.5%	23.1%	21.3%
60대	29.9%	29.5%	31.0%	29.7%
70대 이상	30.9%	39.7%	32.9%	41.7%
65세 이상	46.4%	55.7%	49.2%	58.2%

자료: 통계청, 2016.

- 논벼 수확농가에서 65세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0년 49.2%에서 2014년 58.2%로 18.3% point 증가함.
-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에서 논벼의 65세 이상 농가 비중은 60.6%로 수확농가 비중 보다 높음.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이 최근 증대하면서 지역공동체 와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들녘단위 영농체계의 활용으로 과소화 지역의 영농활동과 지역유지 기능을 배양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 농업노동력이 젊은 지역은 들녘단위에서 쌀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6차산업화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과소화 마을(가구수 20호 미만 마을):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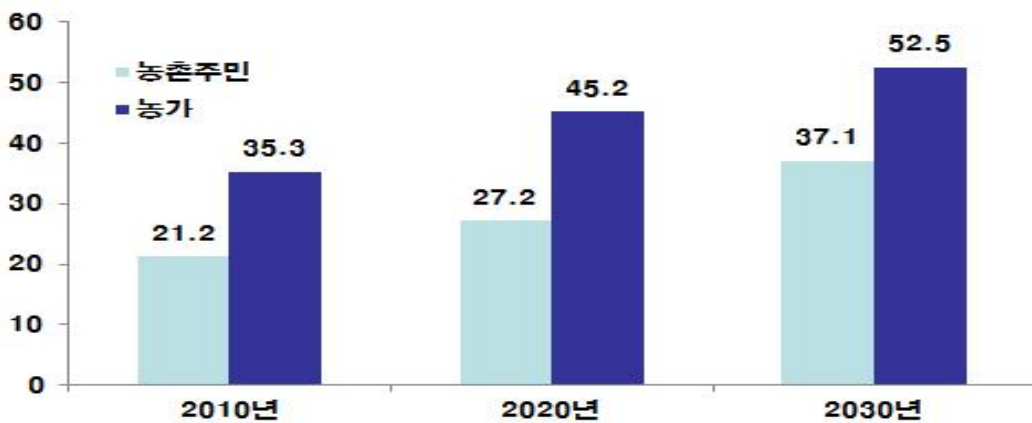
표 2-9.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대별 비교(2014년)

(단위: 호)

구분	계	논벼
전국	1,120,776	472,097
30대 이하	9,947	3,251
40대	82,329	30,500
50대	252,507	94,457
60대	331,083	133,571
70대 이상	444,910	210,318
65세 이상	624,302	286,320
전국	100.0%	100.0%
30대 이하	0.9%	0.7%
40대	7.3%	6.5%
50대	22.5%	20.0%
60대	29.5%	28.3%
70대 이상	39.7%	44.5%
65세 이상	55.7%	60.6%

- 실제 65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2010년 35.3%에서 2020년 45.2% 그리고 2030년에는 52.5%로 약 48.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매년 농촌지역 고령화 주민의 비율은 증가하여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저하하고, 농업경영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
- 농촌지역의 농가에서 65세 이상 농촌주민의 비중은 2010년 21.2%에서 2020년 27.2%, 그리고 2030년 37.1%로 2010년 대비 약 7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농촌지역의 주민과 농가의 구성원의 고령화는 생산력 저하, 활력저하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지역) 공동농작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영농의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들녘경영체를 통한 농촌지역의 근간이 쌀산업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소득원의 발굴과 귀농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1. 농촌의 고령화 실태



자료: 통계청, 2016.

2.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추진 현황

2.1.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추진경과

-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 추진
 - 2008년 전국의 들녘 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들녘단위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시작
 - 2009년 50ha 이상을 조직화하여 경작하는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 12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및 관련 시설·장비지원
- 2011년부터 RPC의 쌀농업 선도 기능을 중시하여 사업대상자에 RPC, DSC 사업자, 농협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시설장비로서는 농가의 조직화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큰 육묘 및 방제작업의 공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지원
- 2015년부터 사업명칭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2014년까지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개명, 2014년 까지 158개 들녘경영체를 선정 지원
 - 교육·컨설팅 10~40백만 원, 공동육묘장·방제기 등 200~400백만 원
- 2016년부터 공동경영의 질적 성장과 들녘경영체를 통한 지역단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특성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들녘경영체별 시설과 장비의 지원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 선정된 다각화 사업체에는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2.2. 들녘경영체 현황

- 들녘경영체 지원현황에서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교육컨설팅’은 459개소, 110,875ha를 지원하였고, ‘시설 및 장비지원’은 123개소, 29,816ha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시설 및 장비지원은 최근 2014년부터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들녘경영체 신규 선정에서 교육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은 경영체에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경영체 지원에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체도 추가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현장에서는 리더와 조합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진행의 연속성과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 또한, 2016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다각화 사업에서도 선정된 경영체에 시설 등 물적 지원과 함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지원사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고령화 농가의 영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선정 경영체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지원의 효과와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는 지역공동체 유지와 쌀 과잉문제 대안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음. 현재 교육과 컨설팅 및 시설, 장비의 지원으로 초보적인 들녘경영체 단위 공동농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의 효과와 지역유지를 위한 경영체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분산된 농지의 집단화와 공동작업별 노임과 연령별 공동작업에서 담당할 노동수준의 협의가 전제조건임.

표 2-10. 연도별 들녘경영체 지원현황(2016년 현재)

연도	신규신청 (교육컨설팅 1회차지원)		2회차 지원		3회차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누계		시설·장비 지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09	12	1,866	-	-	-	-	12	1,866	12	1,866
'10	18	2,694	-	-	-	-	18	2,694	18	2,694
'11	69	15,039	14	2,295	-	-	83	17,334	-	-
'12	19	4,521	24	6,295	7	1,140	50	11,956	6	1,670
'13	14	2,920	19	4,380	19	5,146	52	12,446	7	1,957
'14	26	7,686	16	3,306	17	4,312	59	15,304	20	4,588
'15	66	16,388	23	7,017	15	3,297	104	26,702	25	9,124
'16	48	10,480	22	8,196	11	3,997	81	22,573	35	7,917
계	272	61,594	118	31,489	69	17,892	459	110,875	123	29,816

- 공동농작업의 비용절감과 추가적인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는 분산된 지역단위 농지의 집적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하고, 고령화된 노동력을 고려하여 나이에 맞는 노동분야와 공동작업의 단계별 임금수준에 대한 협의를 통한 공동작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공동작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분산된 농지의 집적화와 단계별 노임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함.
- 들녘경영체를 컨설팅과 시설장비로 구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137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정규모가 확대된 2014년부터 재정적 지원규모도 증가 추세임.

표 2-11. 연도별 들녘경영체 재정 지원현황(2016년 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예산	1,500	2,250	1,000	1,000	1,000	2,500	4,500	13,750
사업량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12개소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18개소	교육컨설팅 83개소	교육컨설팅 50개소, 시설장비 6개소	교육컨설팅 52개소, 시설장비 7개소	교육컨설팅 59개소, 시설장비 20개소	교육컨설팅 104개소 시설장비 25개소	교육컨설팅 378개소, 시설장비 88개소

제 3 장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비 분석

1. 조사 개요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쌀생산비의 절감효과와 공동농작업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의 공동체 유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설 및 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비용절감 효과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비 전국자료를 기준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쌀 생산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의 소득변화와 쌀생산비 단계별 비용에 대한 참여농가와 비참여(일반) 농가수준에서 비교분석함.
 - 통계청 전국조사처럼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는 매일 일계부를 통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기본 표본조사와 함께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부족한 자료와 내용을 보완하였음.
 - 표본조사 대상은 전국의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중에서 규모나 성과면에서 우수한 표본을 선정
- 표본조사에서 쌀 전문형(단작), 복합형(다각화형), 생산자조직형(이모작 등)

으로 구분해서 비용 등을 분석함.

- 들녘경영체의 참여농가 쌀 생산비 조사에는 참여농가의 경영 및 소득 현황, 경영유형, 영농규모 등 쌀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포함
 - 지대별 위치, 경영유형, 영농규모, 이모작 재배현황 등
 - 벼농사 단계별 공동작업 여부, 기술특징, 생산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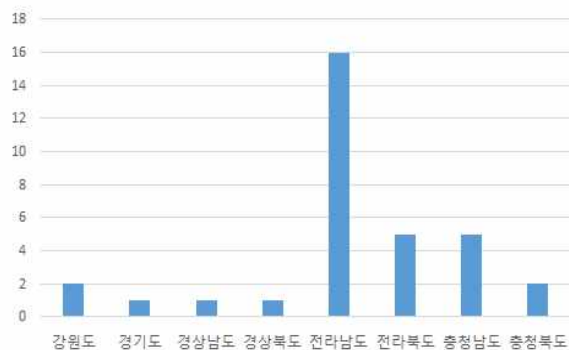
2. 들녘경영체의 경영실태

2.1. 조사 개황

- 지역과 유형별 대표적인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실태와 생산비를 조사하였고,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및 쌀 전문형과 다각화형으로 구분하였음.
- 쌀 생산면적,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라, 충청도 비중이 높음.
 - 전체 33개 표본에서 전라도와 충청도가 28개 표본을 차지하고 있고, 중산간 및 다각경영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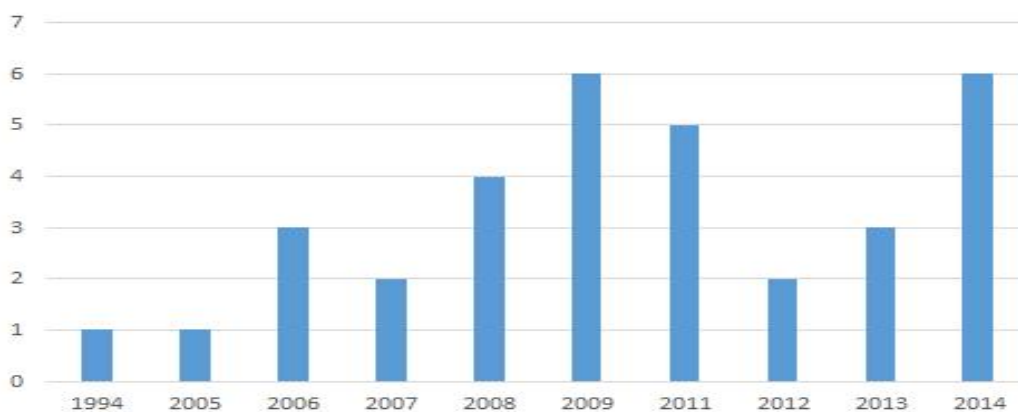
표 3-1. 조사지역

지역	빈도	퍼센트
강원도	2	6.1
경기도	1	3
경상남도	1	3
경상북도	1	3
전라남도	16	48.5
전라북도	5	15.2
충청남도	5	15.2
충청북도	2	6.1
합계	33	100



- 33개 표본에서 들녘단위 공동작업을 위한 작목반 등으로 설립된 조직체는 1994년부터 시작한 조직도 있음. 경영체 설립연도는 1994년에서 2014년까지 포함되고, 들녘경영체 참여연도는 2009년부터 포함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작목반 등 형태로 조직화하여 쌀 생산에 참여한 사례도 많음.
- 설문조사 경영체에서는 2009년과 2014년이 가장 많이 설립되었음.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추세를 같이하고 있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 작목반 등의 조직형태에 참여하는 경영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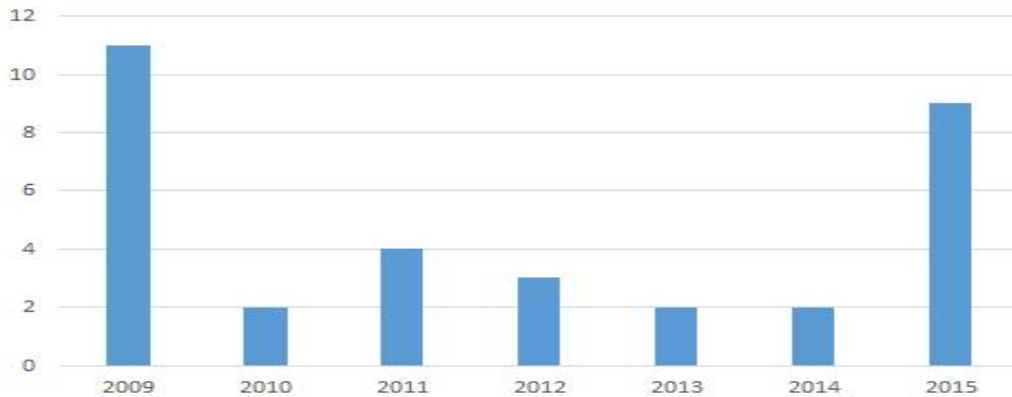
그림 3-1. 쌀 생산 등 경영체 설립연도



- 경영체의 결성은 정부의 지원보다 앞서지만,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농가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체 결성과 일반농가의 참여도가 가장 많은 시기는 정부의 관련 정책의 추진과 다양한 시책 추진 시기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부의 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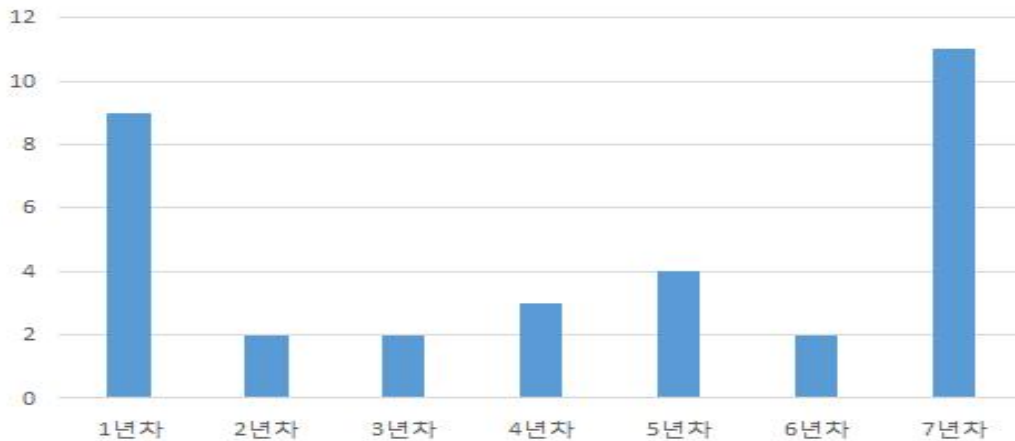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 시기와 육성사업의 참여율은 비례하고 있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자치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직접생산비 절감과 함께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함.

그림 3-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참여연도



- 조사에서 나타난 들녘경영체 참여기간은 1년차와 7년차가 가장 높음. 199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초기부터 2015년까지 다양하게 참여한 농가가 포함됨. 2009년부터 참여한 농가는 11개, 들녘경영체에 참여기간이 1년인 농가는 9개 농가가 포함됨.
- 조사대상 33개 들녘경영체는 교육 및 컨설팅과 함께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아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들녘경영체의 참여 농가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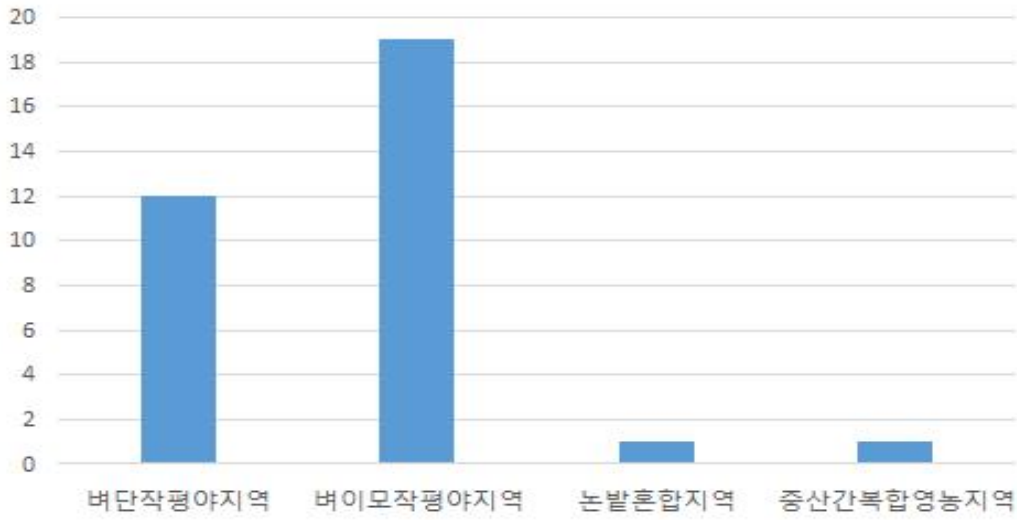
그림 3-3. 들녘경영체 참여기간



2.2. 들녘경영체 지대 및 경영형태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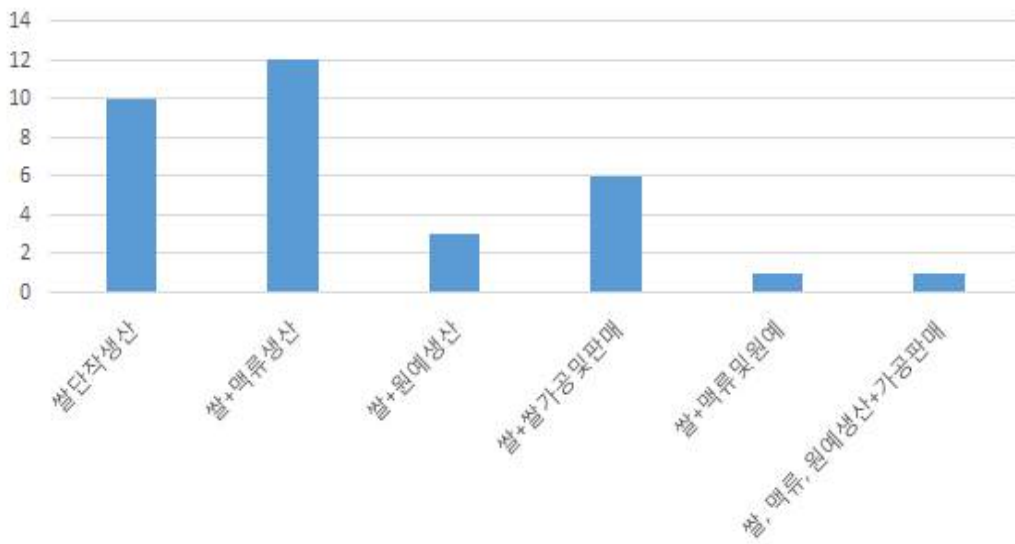
- 조사대상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가장 많고, 따라서 비단작 평야지역과 벼이모작 평야지역(쌀 전문화형, 생산조직형)이 지대별 표본의 분포가 높음. 각각 논밭혼합지역과 중산간복합영농지역(복합화 및 다각화형)도 포함되어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참여로 들녘경영체 유형별 비용절감 등 효과를 분석하였음. 특히, 들녘경영체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음. 생산자조직형(전업농 중심, 부분 공동작업형), 쌀 전문화형(전업농, 기업형 및 단지화) 및 다각화형(복합작목, 6차산업화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그림 3-4. 들녘경영체의 지대별 위치



○ 조사대상 들녘경영체의 경영유형은 ‘쌀+맥류생산’인 이모작 형태가 12개로 가장 많고, ‘쌀단작생산’이 10개, 그리고 ‘쌀+쌀가공,판매’가 6개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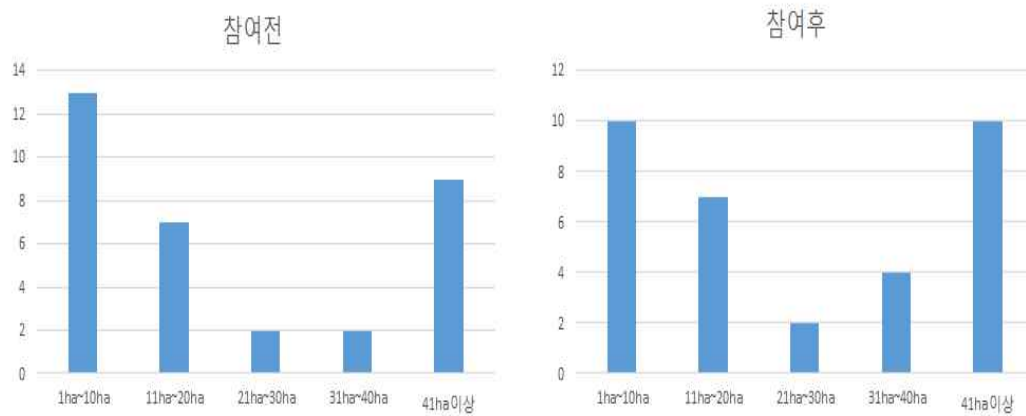
그림 3-5. 들녘경영체 경영유형



2.3. 영농규모 및 이모작 재배면적

-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에 따른 영농규모의 변화에서 소유, 임차 및 수탁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농규모는 증가하였음.
- 1-10ha 영농규모는 참여전 13농가에서 참여후 10농가로 감소하였지만, 31ha 이상 및 41ha 이상 농가는 각각 6농가, 10농가로 증가하였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한 개별농가의 논 면적은 대규모(30ha 이상)로 증가하였음. 육묘와 방제시설의 지원으로 농작업의 편의성과 노동력 절감 효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3-6.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논 면적 추이



- 영농규모에서 세부적으로 임차면적의 추이를 보면 들녘경영체 참여전 1-10ha는 64%에서 참여후 46.4%로 감소하지만, 나머지 면적 비율은 대부분 증가함. 그리고 41ha 이상의 비중도 참여전 20%에서 참여후 28.6%로 증가함. 특히, 노동력 절감과 노동강도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임차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참여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표 3-2.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임차면적 추이

구 분	참여전 임차면적		참여후 임차면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ha~10ha	16	64	13	46.4
11ha~20ha	1	4	7	25
21ha~30ha	1	4	-	-
31ha~40ha	2	8	-	-
41ha이상	5	20	8	28.6
합계	25	100	28	100

- 들녘경영체 참여후 이모작 현황에서 조사대상 33개 농가에서 이모작을 시행하지 않는 농가는 33.3%(11농가)를 차지하지만, 70%는 이모작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 이모작으로 생산하는 주요 작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료, 맥류, 감자 등이 있음.

표 3-3. 들녘경영체 참여후 이모작 현황

구 분	빈도	비율
이모작안함	11	33.3
조사료	7	21.2
맥류	11	33.3
감자	2	6.1
기타	2	6.1
합계	33	100

-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이모작 유별 증감면적에서 조사료는 참여전 106ha에서 참여후 159ha로 면적은 53ha 증가, 특히 쌀 생산과정에서 육성사업을 통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육묘와 방제에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조사료와 맥류(맥주보리)를 생산하여 가공 및 판매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한 사례도 있음.

- 맥류, 감자, 조사료 및 기타의 면적도 증가함. 쌀 전문생산지역인 평야지역에서 쌀 생산에서 절감된 노동력과 농기계를 활용하여 이모작으로 감자 등을 재배하여 추가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의 활성화로 노동력절감과 함께 이모작 도입이 용이하게 되면서 참여농가는 쌀 생산비 절감과 이모작 수입으로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발생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쌀 생산의 비용절감과 함께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이모작, 6차산업화 등으로 소득창출 효과를 동시에 파생시키고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는 첫째, 쌀 생산비 비용절감, 둘째, 노동력 절감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 등이 있음. 공동작업을 통한 쌀 생산비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토지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함.

표 3-4. 이모작 유형별 증감면적

	참여전	참여후	증감면적	증감율
조사료	106	159	53	50.0
맥류	88.46	119.94	31.48	35.6
감자	0.8	2.78	1.98	247.5
IRG	0	160	160	-
기타	6	10	4	66.7
합계	201.26	451.72	250.46	124.4

2.4. 작업별 공동작업면적

-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쌀생산의 작업 단계별 공동작업의 비중이 많이 증대된 것은 육묘(39.4%→75.8%), 방제(45.5%→87.9%), 수확(39.4%→66.7%) 등임.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지원 수준에서 공동작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공동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별 작업단계별 임금과 참여자 연령과 경력에 따른 전문적 담당 노동분야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 들녘경영체 참여 회원간 노동력 활용과 작업단계별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작업의 범위와 경영체의 중장기적 사업수준이 결정되어야 함.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공동농작업 효과에서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로 확장 될 수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과 함께 육묘, 방제 단계의 공동작업 비중이 높음. 향후 쌀 생산 전단계에서 공동작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경영체 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물적(시설 및 장비)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경영체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할 필요가 있음.

표 3-5.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공동작업 비율 변화

참여 전		빈도	비율	참여 후		빈도	비율
경운정지	공동작업 안함	21	63.6	공동작업 안함	16	48.5	
	공동작업함	12	36.4	공동작업함	17	51.5	
	합계	33	100	합계	33	100	
육묘	공동작업 안함	20	60.6	공동작업 안함	8	24.2	
	공동작업함	13	39.4	공동작업함	25	75.8	
	합계	33	100	합계	33	100	
이앙	공동작업 안함	21	63.6	공동작업 안함	16	48.5	
	공동작업함	12	36.4	공동작업함	17	51.5	
	합계	33	100	합계	33	100	
방제	공동작업 안함	18	54.5	공동작업안 함	4	12.1	
	공동작업함	15	45.5	공동작업함	29	87.9	
	합계	33	100	합계	33	100	
수확	공동작업 안함	20	60.6	공동작업 안함	11	33.3	
	공동작업함	13	39.4	공동작업함	22	66.7	
	합계	33	100	합계	33	100	

2.5. 쌀 생산비 및 소득 분석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쌀 생산비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논벼 소득분석 자료를 비교함.
- 조수입은 부산물 수입을 제외한 조곡을 기준한 금액으로 전국 평균농가는 960,265원이지만 조사대상 표본농가의 조수입은 993,000원으로 3.4% 높음.

- 직접생산비에서 종묘비와 비료비 및 농약비 비용으로 한정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들녘경영체가 전국평균보다 11.4%를 절감하고 있음. 실제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에서 육묘시설과 방제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정책지원사업의 효과가 직접생산비의 절감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들녘경영체와 일반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비용관련 일계부를 정리하는 표본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비용절감과 소득증대 효과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 일정 표본집단의 운영이 절실

표 3-6.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주요 생산비 분석

단위: 원/10a, %

항목	2015년 전국 쌀생산 농가 평균	2016 들녘경영체 표본조사평균	증감율
조수입	960,265	993,000	3.4
생산비 합계	691,869	-	-
직접생산비	437,246	-	-
종묘비	15,862	9,952	-11.4
비료비	52,732	51,308	
농약비	26,118	22,684	

-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 모두 들녘경영체 참여후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음.
- 하지만 들녘경영체 참여후 비료비는 증가한 것은 들녘경영체 참여후 노력 절감을 위한 파종상 비료등 고가의 비료를 사용하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들녘경영체 참여후 쌀 생산의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비교적 젊은 참여자(대형농기계 오퍼레이터 등)는 공동작업의 수행으로 일정금액의 노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3-7. 주요 항목별 참여 전후 비용 절감효과

항목		들녘경영체 참여전	들녘경영체 참여후	증감율
직접생산비	종묘비	10,572	9,952	-5.9
	비료비	50,929	51,308	0.7
	농약비	25,144	22,684	-9.8

2.6. 일반농가와 들녘경영체 쌀 생산비·소득성과 비교

- 들녘경영체에 농지를 위탁하고 있는 영세고령농가의 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를 지역관행과 비교하여 보면, 들녘경영체의 시설 및 장비의 지원으로 농작업별 작업수수료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가 쌀 생산관련 단계별 작업비용이 실제 비참여 일반농가가 지불하는 단계별 비용보다 낮게 조사되었음. 지역단위 들녘경영체에 참여하여 쌀 생산비의 절감효과와 함께 생산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고령화, 과소화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경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경운의 3.5%, 이앙 7.9%, ‘경운+이앙+정지’는 6.7%, 수확 7.8%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들녘경영체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육묘와 방제는 각각 13.9%, 13.5%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있음.

표 3-8. 들녘경영체와 지역내 작업단계별 수수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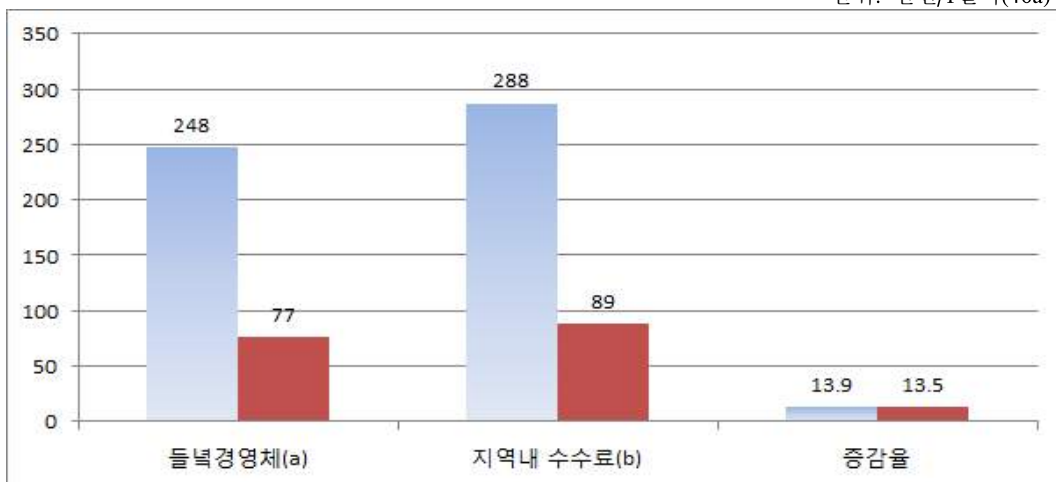
단위 : 천원/1필지(1,200평, 40a), %

구 분	들녘경영체(a)	지역내 수수료(b)	(a-b)/(b)*100
경운	139	144	-3.5
이앙	151	164	-7.9
경운,정지,이앙	361	387	-6.7
육묘	248	288	-13.9
방제	77	89	-13.5
수확	235	255	-7.8
완전수탁	936	1,046	-10.5

- 특히, 필지(1,200평)당 들녘경영체의 농작업별 수수료는 지역내 평균 수수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전 수탁기준으로 보면, 지역내 수수료에 비하여 10.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육묘와 방제부문에서 생산비 절감이 달성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육묘와 방제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는 1필지(40a) 당 13~4% 정도 발생하고 있음.

그림 3-7. 들녘경영체의 작업단계별 수수료 차이

단위: 천원/1필지(40a)



- 들녘경영체 오퍼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기간농가의 들녘경영체 참여전 매출액이 4억 2천만원에서 참여후 4억 7천만원으로 14.1% 소득이 증가함.
- 따라서 들녘경영체에 오퍼레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전업농과 농지를 위탁하는 영세·고령농 모두 유리한 경영형태로 판단됨.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지역의 고령농은 위탁영농으로 영농의 편의성 및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남.
 - 농기계 오퍼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기간농가는 이모작 소득 창출기회 증대 및 농작업 소득 창출기회 확대 등의 다양한 수입원이 추가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효과는 더 클것으로 기대됨.

표 3-9. 들녘경영체 조사 표본농가 평균매출액

단위: 천만원, %

	N	평균매출액	증감율
전매출액	25	42.00	14.1
후매출액	29	47.93	

2.7.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소득 및 생산비 비교

- 들녘경영체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 관련 조사에서 표본 33개 들녘경영체에서 ‘쌀단작’ 10개, ‘이모작’ 16개 그리고 다각화(6차산업화) 7개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비 조사의 제약성 등으로 직접생산비인 종묘, 비료 및 농약 비용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조수입(주산물 수입)으로 소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0. 2015년산 논벼(쌀) 소득 및 주요 생산비

단위: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 10a당 논벼 주산물 수입	1,024,219	960,265	-63,954	-6.2
□ 10a당 논벼 생산비	721,478	691,869	-29,610	-4.1
○ 직접생산비	455,254	437,246	-18,008	-4.0
- 종 묘 비	16,883	15,862	-1,021	-6.0
- 비 료 비	48,343	52,732	4,388	9.1
- 농 약 비	25,220	26,118	899	3.6

자료: 통계청, 2015년산 쌀 생산비조사 결과

- 2015년 전국 평균 논벼 주산물 수입은 960.265원(10a)이고 직접생산비에서 종묘비는 15,862원, 비료비는 52,732원 그리고 농약비는 26,118원임.
- 표본조사 결과 단작 들녘경영체의 조수입은 1,120,957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6.7% 높지만, 이모작 929,546원, 다각화 955,262원으로 전국평균보다 각각 3.2%, 0.5% 낮음. 쌀 단작 중심의 들녘경영체가 쌀 생산과 관련하여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으로 단수증가 또는 계약재배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의 요인으로 집중적인 생산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1.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조수입

단위: 원/10a, %

	조수입	증감
단작	1,120,957	16.7
이모작	929,546	-3.2
다각화	955,262	-0.5
전국	960,265	

- 표본조사 결과에서 단작의 주요 직접생산비는 전국평균보다 13.2% 절감하고 있고, 이모작과 다각화 들녘경영체의 유형은 각각 9.8%, 12.2%의 주요 직접생산비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2. 들녘경영체 경영유형별 생산비

단위: 천만원, %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직접생산비	증감
단작	10,068	50,081	22,047	82,196	-13.2
이모작	10,130	51,100	24,161	85,391	-9.8
다각화	9,377	53,534	20,217	83,128	-12.2
전국	15,862	52,732	26,118	94,712	

- 실제 지역농협에서 쌀 생산과 관련하여 작업단계별 완전수탁을 도입한 결과 육묘에서 수확까지 완전수탁의 경우 1ha당 420,750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있음.
- 실제 농협이 주도하여 생산단계의 완전수탁으로 참여면적(252ha)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공동작업으로 지역사회 기여하고, 지역농업생산의 지속성과 공동체 유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표 3-13. 지역농협 주도 완전수탁 도입시 비용절감 효과

단위: 원/ha

공동농작업 종류	비용납부 주체	미참여농가	참여농가	경영비 절감액	들녘경영체 전체 252ha
육묘	농업인	49,500	41,250	8,250	2,079,000
경운	농업인	907,500	742,500	165,000	41,580,000
이앙	농업인	495,000	412,500	82,500	20,790,000
병충해관리	농업인	247,500	165,000	82,500	20,790,000
수확	농업인	742,500	660,000	82,500	20,790,000
합계		2,442,000	2,021,250	420,750	106,029,000

- 다각경영의 사례에서 청보리와 맥주보리의 조수입을 보면 청보리는 180만원(1ha), 맥주보리는 637만원 조수입이 발생하며, 맥주보리를 활용하여 맥주로 판매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3-14. 들녘경영체 이모작 파급효과(예시)

단위: 원, %

	청보리(조사료)	맥주보리	비고
생산량 1ha	30톨	보리5t+15톨	맥주박사료이용
조수입	1,800,000원	6,375,000원	+4,570,000원
100ha	180,000,000원	637,500,000원	+457,000,000원

표 3-15. 들녘경영체 다각화 파급효과(예시)

단위: 천만원, %

구 분	1일판매 목표	연간매출액	맥아량	원료보리량
소비량 (1개소)	450cc*150 67.5리터	270,000 24,300리터	4,860kg	6,075kg

- 들녘경영체의 발전단계별 효과를 보면, 조사료 공동작업에서 시작하여 수도작, 가공 및 판매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8명에서 19명 확대), 매출액(117억 원에서 189억 원 증대) 등이 증대하여 지역사회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표 3-16. 들녘경영체 단계별 효과(예시)

단위: 천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참여농가(호)	254	254	254	
공동농작업 면적(ha)	600	600	600	
일자리창출(명)	8	10	19	
매 출 액(백만원)	1,173	1,177	1,892	
조사료	640	677	263	
수도작	232	268	359	
절임배추	830	198	776	
식품가공 (고춧가루-즙)	11	34	5	
육가공 및 판매	-	-	489	판매장375백만원 식 당 114백만원

표 3-17. 대규모 쌀농가 생산비(전국평균과 5ha 들녘경영체 참여표본 농가)

단위: 원/10a

	조수입	증감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직접생산비	증감
전국	960,265		15,862	52,732	26,118	94,712	
전국, 5ha 이상	-	-	13천원	49천원	26천원	88천원	-4.7
5ha 이상 농가	979,495	2.0	9,707	51,556	22,586	83,849	-11.5

- 33개 들녘경영체 참여 표본농가에서 5ha이상 쌀 생산농가 28개를 대상으로 전국평균과 생산비 및 조수입을 비교함.
- 조수입은 대규모 참여농가가 전국평균보다 2% 높고, 종묘비 등 직접생산비는 11.5% 절감하고 있음. 전국 5ha이상 농가보다도 4.7% 절감
- 대규모 농가는 전국평균보다 종묘비와 농약비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남. 시설과 장비의 지원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

3. 소득창출 및 비용절감 효과

- 들녘경영체의 현실적 제약조건(농지분산 등)으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한계가 있지만, 쌀 생산과 관련하여 육묘와 방제부문에 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농가소득 다각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쌀 생산에서 절감된 노동력과 농기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리, 감자 등을 추가적으로 재배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쌀 생산비 절감효과는 표본조사 결과 10~50% 정도 이지만, 노동력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농업소득 창출 효과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직접적인 효과로 이모작 등으로 농지의 효율성 증대와 추가소득 창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족농 일부가 인근 농공단지 등에 취업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는 쌀 생산비 비용절감, 노동력 절감을 활용한 추가 소득 창출(이모작, 타부문 취업 등)의 효과와 함께 고령농의 농작업 수월성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 효과 및 추가소득원 발굴과 농작업 편리성 향상으로 귀농자의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파생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8. 노동력 절감에 따른 추가 농업소득 창출 사례

단위 : 년 1기작/10a, 원

구 분	조수입	소 득	사례조사
쌀 보 리	503,530	271,434	· 보리 '13년 10.0ha → '16년 13.0ha · 소득액: '13년 20백만원 → '16년 26백만원
맥주보리	435,005	214,429	· 맥주보리 '15년 1ha, 637만원 조수입이 발생
봄 감 자	1,860,313	912,337	· 감자 '13년 0.8ha → '16년 4.4ha · 감자 소득액: '13년 40백만원 → '16년 220백만원

자료: 통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2016.

- 일반적으로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는 일계부를 작성하지 않지만 주요 생산단계별 투입비용 정도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음.
- 통계청 기준 2015년 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별 비용절감 효과 사례를 적용하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비용절감 효과는 13.6% 수준으로 나타남.
-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수준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효과로 육묘와 방제시설의 지원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절감과 노동력 절감효과가 높아 들녘경영체 참여 생산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그리고 보다 정확한 절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유형별 표본을 선정하여 들녘경영체 생산활동에 대한 일계부를 작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단법인 회원을 통한 일계부 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3-19. 2015년 전국 쌀생산비

단위 : 10a, 원

구분	생산비 항목별	2013	2014	2015
전국평균	생산비 합계	725,666	721,478	691,869
	직접생산비	446,988	455,254	437,246
	종묘비	15,756	16,883	15,862
	비료비	44,241	48,343	52,732
	농약비	24,982	25,220	26,118
	기타 재료비	16,115	15,009	12,979
	수도광열비	7,331	7,019	5,835
	농구비	51,024	54,663	45,264
	영농시설비	922	1,244	1,196
	자동차비	461	5,409	5,853
	노동비	173,242	167,895	160,329
	위탁영농비	106,710	107,101	103,201
	기타비용	6,004	6,158	7,660
	생산관리비	200	310	217
	간접생산비	278,679	266,225	254,623
	토지용역비	252,661	251,841	244,072
	자본용역비	26,018	14,384	10,551
	부산물생산비	23,133	23,096	23,41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2015년 전국 쌀생산비에서 직접생산비는 437,246원(10a 기준)이고, 간접생산비는 254,072원임. 직접생산비에서 노동비와 위탁영농비가 각각 160,329원, 103,201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간접생산비에서는 토지용역비가 244,072원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들녘경영체에 공동육묘장과 방제기 등을 지원해 노동력 절감과 농약 등 대량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와 고령농

에게 영농 편의성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유지 등의 간접효과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를 통한 쌀 생산비의 절감효과는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와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들녘경영체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쌀 생산 관련 비용을 집계해서 분석하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선정된 표본을 통하여 생산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추가 소득작목 생산에 따른 효과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3-2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비용절감 효과

단위 : 원/10a, %

항목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 재료비	수도 광열비	농구비	영농 시설비	위탁 영농비	노동비	기타 비용	비용 절감 효과
통계청 2015년 쌀생산비 평균	15,862	52,732	26,118	12,979	5,835	45,264	1,196	103,201	160,329	268,353	-
들녘 경영체	9,952	51,308	22,684	11,162	5,018	38,927	1,029	88,753	137,883	230,784	-13.6

주: 주요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비 조사에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는 표본조사 결과이고, 생산비의 다른 비용부분은 표본조사에서 생산자가 전체 비용절감 효과로 제시한 14%를 적용함.

기타비용에는 자동차비, 생산관리비 및 간접생산비가 포함

자료: 통계청, 농산물 생산비조사, 2016.

4. 시사점

- 비용절감 효과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비 전국자료를 기준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쌀 생산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의 소득변화와 쌀생산비 단계별 비용에 대한 참여농가와 비참여(일반) 농가수준에서 비교분석함.
- 조직체 결성과 일반농가의 참여도가 가장 많은 시기는 정부의 관련 정책의 추진과 다양한 시책 추진 시기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 시기와 육성사업의 참여율은 비례하고 있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자치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직접생산비 절감과 함께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함.
- 영농규모에서 세부적으로 임차면적의 추이를 보면 들녘경영체 참여전 1-10ha는 64%에서 참여후 46.4%로 감소하지만, 나머지 면적 비율은 대부분 증가함. 그리고 41ha 이상의 비중도 참여전 20%에서 참여후 28.6%로 증가함. 특히, 노동력 절감과 노동강도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임차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참여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 참여후 이모작 현황에서 조사대상 33개 농가에서 이모작을 시행하지 않는 농가는 33.3%(11농가)를 차지하지만, 70%는 이모작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 이모작으로 생산하는 주요 작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료, 맥류, 감자 등이 있음.

- 들녘경영체의 활성화로 노동력절감과 함께 이모작을 수월성이 증대되어 참여농가는 쌀 생산비 절감과 이모작 수입으로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 증대가 발생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쌀 생산의 비용절감과 함께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이모작, 6차산업화 등으로 소득창출 효과를 동시에 파생시키고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과는 첫째, 쌀 생산비 비용절감, 둘째, 노동력 절감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 등이 있음. 공동작업을 통한 쌀 생산비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토지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함.
-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쌀생산의 작업 단계별 공동작업의 비중이 많이 증대된 것은 육묘(39.4%→75.8%), 방제(45.5%→87.9%), 수확(39.4%→66.7%) 등임.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지원 수준에서 공동작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한 공동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별 작업단계별 임금과 참여자 연령과 경력에 따른 전문적 담당 노동분야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 들녘경영체 참여 회원간 노동력 활용과 작업단계별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작업의 범위와 경영체의 중장기적 사업수준이 결정되어야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공동농작업 효과에서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로 확장 될 수 있음.

- 통계청 기준 2015년 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별 비용절감 효과 사례를 적용하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비용절감 효과는 약 13.6% 수준으로 나타남.
-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수준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효과로 육묘와 방제시설의 지원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절감과 노동력 절감효과가 높아 들녘경영체 참여 생산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들녘경영체를 통한 쌀 생산비의 절감효과는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와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들녘경영체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쌀 생산 관련 비용을 집계해서 분석하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함.

제 4 장

경영유형별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와 시사점

1. 들녘경영체의 구조와 유형구분

- 들녘경영체는 생산조직의 하나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생산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조직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농가의 주체적조건(농가의 경영적 성격과 의향), 환경조건(노동력시장의 조건, 농업생산기반 조건, 농가의 구조)에 대하여 조직체가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업생산조직은 주체적구조(농가), 객체적 구조(환경), 조직체적 구조라는 세가지의 구조와 그 상호 규정관계가 동시에 성립되고 있으며, 생산조직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농가의 주체적조건, 환경조건을 구성원 농가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그림 4-1. 조직유형의 규정구조



○ 현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들녘경영체의 유형 및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크게 대별하면, 생산조직형과 경영체형으로 구분됨. 생산조직형은 개별경영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주요 농작업의 공동화를 꾀하는 형태임. 경영체형은 조직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서 쌀 생산·판매 부문에 전문화하고 있는 유형과 쌀 부문의 수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합작물의 도입, 다각화등을 통하여 경영을 복합화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음.

표 4-1. 들녘경영체의 유형별 경영특성

조직 유형	생산조직형	경영체 형	
		쌀 전문화 형	복합화·다각화형
조직 목적	쌀 비용절감	사업수익 증대	사업수익 증대
구성원 성격	쌀 전업농 중심	쌀 농가+농기업	영세소농+전·기업농+타조직
경영 내용	농기계 공동이용	쌀전문화	쌀+복합작목+가공·유통
관리 기능	분산	통합	통합
경영 특성	·전업농 중심 개별생산 RPC와 계열화 ·농작업 부분적 공동화 ·환경단지, 조사료생산단지, 복합작목단지 등 단지를 기초로 재배협정	·경영체중심의 통합경영 ·쌀브랜드 조직화 경영 ·특정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논농업의 단지화 조직화 실현	· 쌀단작 경영의 발전모형 · 복합화·다각화로 수익증대 · 광역형 조직, 타 법인과 연대
사례	무형, 에쿠스	아자개, 봉황농협	영실, 청자골, 메내골

- 생산조직형은 주로 농작업 수탁을 대행하여 온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 그룹이 조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영농을 유지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육묘, 방제등 대규모 기술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의 작업수탁농가와 일반농가 등과 부분적인 공동영농을 추진
 - RPC와 협약을 통한 계약재배단지를 운영하고, 공동작업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은 작업별로 정산되고, 자본적립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쌀 전문 경영체형은 쌀전문경영체 형과 복합화·다각화 형으로 구분됨. 쌀전문경영체는 쌀 가공시설을 갖춘 쌀판매업자 또는 농협과 쌀 농가가 결합한 사례로서 고품질쌀 생산·판매를 통하여 수익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고품질쌀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배단지는 작목반체계로 재배협정, 농기계 공동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복합화·다각화형은 이모작, 재배단지를 활용한 생산의 복합화, 가공·유통·판매 조직화를 통하여 주년 생산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영체를 중심으로 통합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영마인드를 가진 대표와 전업농이 주주로 참여하는 광역형 조직형태가 일반적이며, 농작업수탁조직과 연대하여 복합작물의 단지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2. 유형별 우수사례

2.1. 생산조직형

□ 무형친환경영농조합

경 영 실 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과 유통으로 농업소득 창출 · 친환경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유통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익산)으로서 평야지역 · 벼와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 익산에서도 친환경 적합지역(산으로 둘러싸여 있음)
	조직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 들녘경영체 선정(2011년) · 소비자 기호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쌀 친환경재배단지를 조성, 공동영농 추진 · 농약, 화학비료 감축과 축분 자원화 등으로 비용절감, 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소득창출 도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쌀 공동영농(2011년 200ha → 2016년 489ha) · 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2016년 위탁면적 146ha) · 이모작으로 녹비작물과 보리 재배 · 지역 농가 이모작(보리, 녹비작물) 농작업 위탁 대행 · 친환경쌀 유통업자와 계약재배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11명, 준조합원 70명 참여 · 경운·정지, 육묘·이앙, 수확·건조, 출하 공동화(생산량의 70%) · 채종포, 육묘장, 이앙기, 건조기 법인 소유 · 친환경 영농자재 공동구매 · 위탁영농(146ha)수익금 적립(2015년 800만원)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이모작 단지화로 주년 경영체계 확립으로 경영 최적화 · 공동영농을 통한 수익실현, 수익금 일부 적립 · 친환경영농 농자재 공동구매로 친환경자재 등 원가 공급으로 비용 절감효과 · 계약재배로 유통효율화 및 판로 안정적 확보
	참여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일반농가 대비 15% 향상) · 친환경 쌀 계약재배로 농가수취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20%), 흑미(15%), 특수미(10%) 등은 미참여 농가보다 높은 가격
경영성과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을 통한 농기계 효율적 이용으로 비용절감 및 소득증대 · 계약재배를 통한 협력체제로 판로확보 및 수취가격 상승(소득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6.

□ 에쿠스영농조합법인

경영실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 절감된 노동시간을 활용, 지역특화 품목인 감자, 콩, 조사료 단지 운영으로 소득증대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대표 쌀 재배지역인(김제) 대규모 평야지역 · 벼와 감자, 맥류 등 이모작 가능 지역 · 대규모 전업농 중심 수·위탁지역, 귀농자 유입이 최근 증가
	조직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기로 쌀전업농이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9년), 들녘경영체 선정(2012년) · 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 쌀 생산비 절감 및 복합영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공동영농(공동방제 2014년 412ha → 2016년 600ha, 공동육묘 150ha) · 이모작 공동영농(2016년 감자 420ha, 콩 5ha) · 조사료 재배단지 공동운영(2016년 180ha, 김제 한우특구단지 활용)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5명, 준조합원 15명, 농작업 풍앗이농가 10명(귀농자 6명 준조합원으로 참여) · 쌀 공동 육묘·방제·건조, 감자, 콩, 동계작물(청예보리) 공동영농 · 적립금 5천만원, 자조금 운영계획
경영성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영농으로 수익증대 · 개별소유 농기계 이용 효율화 · 영농규모 확대 · 수익금 3,200만원 적립
	지역·참여 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 절감(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육묘가격(3,200원/장), 공동육묘(2,500원/장) · 공동방제 참여농가는 관행방제보다 시간, 경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900농가 중 630농가 공동방제 참여로 비용 및 시간절감 효과 ·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감자 지역사회 기부 활동
경영성과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을 통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절감 · 이모작 작물에 대한 지역법인과 연합하여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소득증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6.

2.2. 쌀 전문화형

□ 아자재영농조합법인

경영실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절감 · 품종통일, 벧짚 등 재활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수취가격 향상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의 대표적 쌀 재배지역인(상주) 평야지역 · 벼와 축산, 배, 포도, 꾀감 등 복합영농 지역
	조직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쌀전업농과 지역사업가 모여 공동경영체 조직(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2년) ·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 추진 · RPC 중심의 고품질 쌀 계열화 체계 구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공동영농(2012년 134ha → 2016년 650ha) · 농작업은 작목반 단위로 실시(금화작목반, 구천작목반) · 계약재배 생산한 쌀을 자체 RPC를 통해 판매 · 타 작물 재배(2016년 동계작물 10ha, 2017년 100ha 계획) · 찰쌀떡 가공공장, 체험장등 6차산업화 추진계획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와 가공·유통단계 2단계 조직화(생산은 작목반단위, 가공유통은 RPC) · 생산은 2개 작목반(조합원 450명)을 중심으로 실시, RPC와 계약재배(생산량의 80%), 재배면적의 80% GAP 인증 · 농자재 구매에서 가공·판매 까지 수직계열화 · 생산단계의 유희자원(노동력·농지)을 활용한 재배작물의 복합화추진(조사료 10ha),
경영성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경영수익 실현(2015년 2억원) · 수익금의 적립(2016년 현재 6억원) · 쌀 수출 실현(2016년 정곡 130톤)
	참여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조합원 쌀 생산비용 15%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 공동육묘·방제로 비용·노력절감. 지역 육묘가격(3,500원/장), 공동육묘(2,000원/장) - 건조장, 대형 농기계 공동활용으로 비용과 노동력 절감 · 조합운영 RPC와 고품질쌀 계약재배로 지역관행보다 수취가격 20% 높음. - 농협 일반벼 수매가격 44천원, 경영체 일반벼 48천원, 찰벼 55천원
경영성과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 고품질 쌀 생산·유통계열화로 농가 수취가격 향상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6.

□ 봉황농협

경 영 실 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농가의 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고품질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
	지역특성	· 배 주산지, 벼 +과수(배)의 복합영농지대
	조직화 계기	· 고품질 쌀 생산단지 확보 및 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도작 완전위탁체계 구축이 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위탁 사업량: 4ha(2014)→120ha(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 논두렁제초, 알거름만 농가가 담당하며, 나머지 전작업 위탁 - 부분위탁은 받지않으며, 조건불리지 만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별 경작농지를 전부 위탁하는 농가에 한하여 인수 - 단 육묘와 공동방제는 완전위탁분 만으로는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인수 - 2015년 직파 20ha를 신규추진, 2016년 현재 농협 20ha, 농가주관 30ha 총 85ha 추진 · 육묘사업량: 449호 76,210판 250ha(2014)→ 506호, 95천판 400ha(2016년) · 항공방제 사업량: 관내 1,044ha, 443호, 관외 319ha, 총 1,363ha(2014)→ 1,500ha(2016년 추정) · 건조·수매량: 2,052톤/51,319가마(2015)→ 2,400톤/60,000가마(2016년 추정) · 농한기 활용: 고추·배추육묘, 절임배추가공, 배 선과작업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농기계은행에 의한 직영 운영체계 · 들녘경영체 완전위탁 참여농가: 157농가/105ha(2015)→198농가/120ha(2016) · 들녘경영체 사업 인력: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1명, 오퍼레이터 8명(농기계 3명, 무인헬기 5명), 보조 4명 ⇒ 인력운영의 효율화, 주년농작업체계 확립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매출액 900백만원, 경영수익 185백만원 실현
	참여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3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경영비 절감: 100백만원 - 공공비축사업 참여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 102백만원 - 공동판매를 통한 수취가격제고: 20백만원 - 친환경쌀 계약재배에 의한 수취가격제고: 100백만원
경영성과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년 영농체계의 구축을 통한 인력 운용의 효율화 · 이양에서 건조·수매후 정산까지 완전위탁 일괄처리체계 구축 · 들녘경영체 운영과 관련한 정부 보조사업의 효율적 활용(친환경지구 조성사업, 농기계은행사업, 들녘경영체사업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6.

2.3. 복합화·다각화형

□ 영실영농조합법인

경 영 실 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대규모 공동영농으로 쌀 생산비 및 노동력절감 · 절감된 노동시간을 활용한 복합영농(한우, 딸기, 조사료), 6차산업화(한우판매장, 하우스맥주 개발)로 농가소득 창출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산청), 원예와 축산 등 복합영농 지역 · 쌀과 축산(한우)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가능 지역 · 호국원(국립묘지 등)과 고속도로 인접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조직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계기로 법인설립(2006년), 들녘경영체 선정(2010년) · 주재배 작목인 쌀의 생산여건 불리 지속으로 소득향상 걸림돌 · 공동영농을 통한 잉여 노동력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한 복합영농, 경영 다각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공동영농(2010년 180ha → 2016년 182ha) · 조사료단지 공동영농(2016년) · 지역농민 쌀 재배 농작업 부분 및 완전 위탁 대행(공동육묘, 공동방제) · 지역 한우농가와 협력하여 한우플라자 운영(6차산업화), 조합 참여 농가의 한우를 도축하여 판매(년간 매출액 25억원, 도축량 250두) · 한우플라자와 연계 경축 순환농업 추진, 맥주보리재배 와 연계한 하우스 맥주 가공시설 및 직판장 운영으로 수익모델 강화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131호, 영농규모 182ha · 공동육묘(160ha), 공동방제(350ha), 조사료생산(80ha) · 쌀 가공(1,000톤), 한우사육(800두) · 조합원 공동출자로 한우판매장 운영, 하우스맥주 가공·판매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복합화·다각화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쌀 가공·판매, 한우 사육 및 판매, 맥주맥 가공·판매
	참여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영농 참여자의 쌀 생산비를 지역 평균보다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비 11% 절감 - 공동육묘로 작업시간 85% 공동방제로 작업시간 80%, 경비 60% 절감 · 한우프라자 직원 10명 내외 연중 고용 창출효과, 한우 판매기반 구축 · 절감노동력 개별영농 투입 여유 확보(딸기등 밭작물)
경영성과요인		· 영농복합화, 6차산업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6.

□ 청자골영농조합법인

경영실태	경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농업의 비용 및 노력절감·복합화·다각화로 수익모델 창출 · 군동면 관내 전체를 조직화, 계열화 하여 6차 산업화 실현을 목표
	지역특성	·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대규모 평야지대
	조직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농식품부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70ha) · 공동영농을 통한 쌀 생산비 절감 및 영농의 복합화·다각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공동화(2016년 옥묘·과종·방제·수확 600ha) · 조사료 생산(2007년 70ha→2015년 350ha) · 절임배추등 발작물 생산·가공·판매사업(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배추 10ha, 맥주맥쌀보리 250ha, 양파 23ha · 한우육 가공공장 및 판매장 2015년 오픈 · 쌀·고추가루 가공·판매사업 추진
	농작업 조직화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법인결성, 조합원 5인으로 출발. 85백만원(1인당 17백만원 출자), 2010년 현대표 취업, 2015년 현재 조합원 23명 · 2014년 들녘경영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조합원 185명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현재 320호, 600ha 규모의 조직화 실현 · 정규직 17명(조합원 5명 포함), 월평균 일용근로자 70명 고용
경영성과	경영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매출액, 사업수익 대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2012년 328백만원→ 2015년 4,000백만원(추정) - 순수익: 2012년 17백만원→ 2015년 130백만원(추정) - 조합원: 연간 3~4천만원 이익배당
	참여농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위탁으로 영농편의성 및 비용절감, 복합작목 도입지원(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위탁작업비 114만원/900평, 기계작업비 30%절감 · 정규직 17명(조합원 5명 포함), 월평균 일용근로자 70명 고용 · 연간 3천만원 장학금 조성 지원
경영성과요인	· 논농업의 비용 및 노력절감·복합화·다각화로 주년 경영체계 확립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5.

□ **외내뜰 영농조합법인**

경 영 실 태	경영목표	· 홍천군 쌀 친환경농업단지의 가공·유통·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판매 효율화
	지역특성	· 대표적인 중산간 지대로서 중·소농 중심의 복합영농지대
	조직화 계기	· 홍천군명동리 친환경작목반이 모태. · 홍천지역 친환경농업 공동체 15개소를 묶어 계약생산, 친환경생산물의 물류·유통 전문조직으로 외내뜰영농조합 출범
	사업내용	· 매출액 114억(2015) · 친환경 쌀,잡곡 공동생산·가공·판매 - 참여농가 441호(15개 공동체), 재배면적 201ha(2015) · 친환경 노지·시설채소 생산·가공·판매 - 참여농가 300호, 재배면적 272ha · 도·농교류행사 추진 500명(2015)
	농작업 조직화 실태	·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 · 생산조직이 주도하는 농작업은 15개 공동체 단위로 실시 · 유통조직은 생산조직의 출자에 의해 별도조직으로 운영 · 자산규모 32억원, 조합원수 441명, 상근직원 42명(2015년 현재) · 홍천군 연합회 주관하에 계약재배, 재배메뉴얼에 의한 재배협정, 농작업공동화(육묘, 이앙, 수확, 건조, 출하 공동화)
경 영 성 과	경영체 측면	· 홍천군 친환경농산물 선도 생산·유통조직으로서 위상확보 · 매출액 114억원, 수익 1,500만원 실현
	참여농가 측면	· 홍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농가의 수취가격 안정화 · 유기농쌀 수매단가: 83,000원/ 40kg(2015),주변지역보다 3천원 높은 가격
경영성과요인		· 소규모 작목반 단위의 친환경농업단지 연합회-외내뜰 영농조합의 생산·유통의 계열화 체계구축, 한살림,학교급식등 안정적인 판로확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실태조사 결과. 2015.

3. 들녘경영체 유형별 시사점

- 지역단위 일반 농가에 육묘, 방제 등 농작업 단계별 비용절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으로 시설장비의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영농편의성 증대 및 비용 절감효과가 큼.
 - 그러나, 들녘경영체가 소수의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영주체의 성과확보와 일반농가의 비용절감 효과 간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도 있음.
 - 들녘중심의 마을영농을 위해서는 지역의 리더와 참여자간 인식공유 및 성과 배분에 대한 합의, 노동력 수준별 고용(고령자는 물관리 등), 임차관계 설정(고령자 농지 임차하여 마을영농에 활용) 등 이해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함.

- 우수사례의 경우 쌀생산의 비용 절감 및 노동력 절감에 한정하지 않고 이모작, 복합작목도입, 쌀전문 계열화, 6차산업화 등 다양한 형태로 농가소득 및 수익 창출이 일어나고 있음.
 - 기업형 법인경영(쌀전문화, 복합산업화)을 통하여 경영체의 발전은 물론, 고용, 계약재배를 통한 판로확보와 수취가격 향상, 지역공동체 지원등 지역 농산업의 구심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농협의 들녘경영 참여사례를 보면,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과 정부의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등을 활용하여 일관작업체계를 구축하여 육묘에서 쌀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전 위탁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맞춤형 쌀생산을 통한 쌀 판매수익을 제고하므로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농협에서 커버 할 수 없는 작업물량에 대하여는 지역내 농작업수탁조직과 연대하여 작업수행,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부분의 보강(절임

- 배추가공사업, 배 선별사업등), 직파재배를 통한 인력수요 분산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위탁작업을 수행하는 대농가의 임작업료보다 저렴하게 작업함으로써 이들과의 마찰이 있지만, 임작업료의 안정화 및 적정화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 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들녘경영체를 단순히 농기계 공동이용수준, 또는 농기계 및 시설지원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라 소득 및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체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생산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사업 부분(육묘, 방제)만 공동이용 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경영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며, 조직 구성원의 개별경영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제 5 장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사례 분석

1. 배경 및 추진경과

1.1. 배경

-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 기반이 하락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되는 가운데,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농촌마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농촌사회에서 경쟁열위에 있는 중·소 고령농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영세 고령농의 사회·경제적 배려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전업농 중심의 정책에 힘입어 개별영농의 규모화가 진전되었으나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음.

- 한편으로 개별영농 규모화방식은 농업선진국의 규모화 수준과 비교할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마을영농을 통하여 지역의 자원을 조직화하고 고도화하여 농촌사회의 경제적 기반 및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1.2. 추진경과

- 경북도는 2012년 농촌사회의 급속한 해체, FTA 등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상실에 대응한 새로운 경북농업의 신비지니스 모델 개발 추진
 - 일본집락영농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접목, 새로운 영농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동년 7월에 경북형 마을영농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농업인,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년 8월에 경북형 마을영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사업추진
 - 동년 9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거쳐, 2013년 시범사업 대상 3개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착수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운영중이며, 사업 대상 마을별 전문가 2명 전담 배치
- (재)경북농민사관학교 마을영농 교육과정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마을대표 등, 교육 책임기관(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총 14개마을이 참여하고 있음.

2. 기본구상

2.1. 경북형 마을 영농의 개념

- 농업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여 마을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집락영농 등 국내외 유사한 마을단위 사업과는 차별되게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을단위의 선진 영농시스템
 - 일본 집락영농 등 국내외 유사한 마을단위 사업과는 차별되게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을단위의 선진 영농시스템
 - 마을은 영농형태, 정서적 공감대, 동일생활권을 가진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그림 5-1. 마을영농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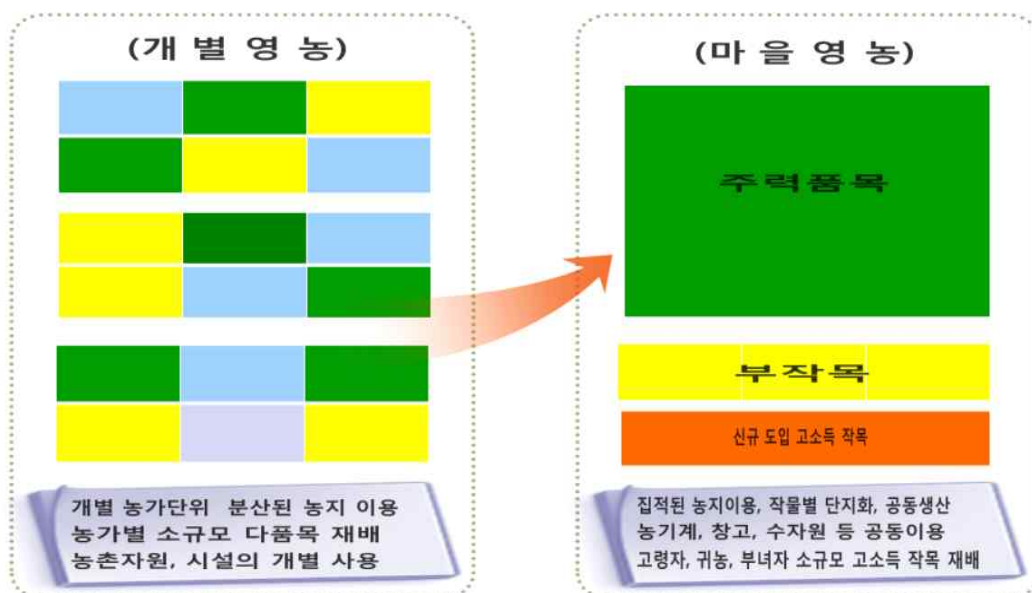


그림 5-2. 마을영농 조직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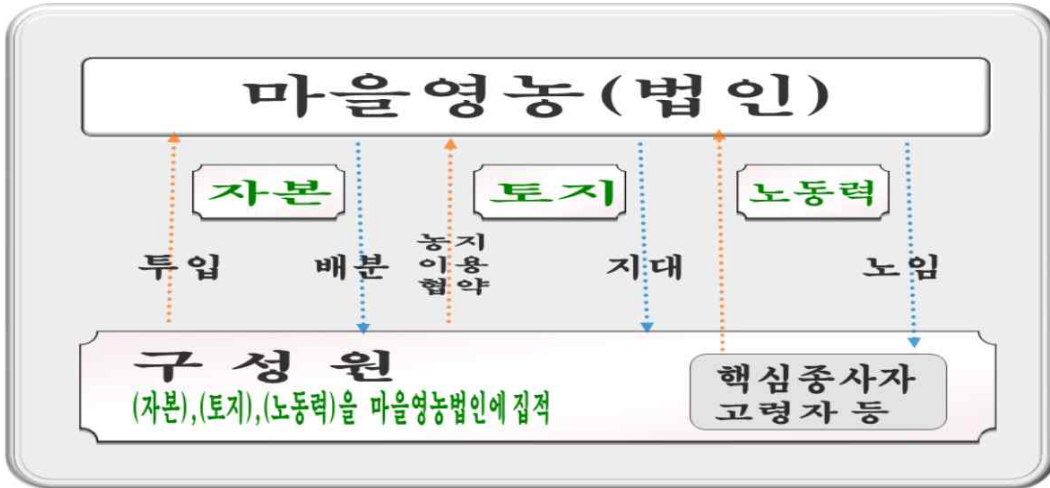


그림 5-3. 마을영농 발전모델



2.2. 추진방향

- **시스템혁신** : 농업·농촌의 근원적 기능 회복을 위한 영농시스템 혁신
 - 개별농가 중심 탈피, 마을단위 영농에 초점 → 농업 체질개선 유도
 - 영농활동 공간에서 생애 샵터, 일터로 질적변화 → 농촌활력 촉진
 - 농경지 유동화 촉진(휴경화 방지)으로 식량자급 기반 유지
- **영역확대** : 소득창출 위한 영농활동의 다양화, 다각화
 - 농지집적화, 경제활동 통합화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 고소득 작목 도입, 지역단위 6차 산업화(제조·가공, 관광) 소득창출 창구 확대
- **배 려**: 고령농, 소농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
 - 고령층 등 비경제활동 계층을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재편입(return)
 - 영 파머(취농희망자, 후계자), 귀농·귀촌인력 일자리 제공
 - 영농목적은 단순 생산성이 아닌 사회복지 분야로까지 확대
- **공동체 의식**: 새마을 운동 연계 공동체 의식 강화, 마을기능 회복
 - 참여자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 유대감, 일체감 조성
 -
- **협력체계**: 위험분산, 상호보완적 민-관 협치체계 구축
 - 농업인(지역민), 행정, 농협, 유관기관단체 등 역할 분담

3. 사업 추진 실태와 성과

3.1. 사업추진 현황

- **추진형태:** 일본의 집락영농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영농방식으로 추진
- **영농주체의 유형:**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 혼합형으로 구분
 - **마을주도형:** 마을주민(농업인)이 마을영농 경영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유형으로 마을 구성원 전체(대부분)이 참여하는 유형과 일부 핵심농이 법인주체가 되는 2개 유형으로 구분됨. 규모, 주민협의, 의사결정 속도, 리더역량에 따라 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목적상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 유도
 - **농협주도형:** 지역 농협이 마을영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주체적 역할 수행하는 형태로서, 농협이 단순 기술지도를 넘어 조합원의 농업경영 전반을 지도
 - **기업협력형 :** 기업이 마을영농 법인의 주체로서 또는 마을영농법인(마을)과 연계하여 협력적 관계로 참여하는 형태로서, 지역 내외기업이 주도로 설립한 법인에서 주로 유통·가공과 연계된 대상임.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사의 식품제조, 유통업과 연계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내의 마을영농 실현 영농회와 협약을 맺거나, 마을영농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
- **공동 시설·장비, 기반정비 등 지원**
 - **사업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 30%, 시군 70%),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행주체/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영농 수행 마을(법인)
 - **사용용도 :** 공동생산, 처리 등 마을영농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개설, 수로정비 등 기반 정비, 마을영농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비 등 경상적경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마을(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요·불급하거나 사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공·유통시설은 후순위 지원 검토

○ 교육·컨설팅/해외실태조사

- (교육·컨설팅) : 마을영농 추진에 따른 작부체계,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구성원간 신뢰도 제고,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마을영농 추진마을(법인체)의 내재적 역량강화 위한 전문기관 교육·컨설팅 비용
- (해외실태조사) : 마을영농 추진에 따른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 목적 일본 집락영농 현지 실태조사 비용(민간인 국외여비)

○ 마을영농육성 사업대상 발굴·지도·관리(도)

- 기본방침 : 일반 공모사업 같이 심사에 의한 선정·탈락 형식이 아닌 “pool”형식으로 발굴, 준비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차적 육성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일반 시책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 2021년까지 도내 선도모델 50개소 조성 후 확산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잠재적 사업대상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재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마을영농 선정 기준
 - 마을단위 협업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
 - 농지 집적화, 공동이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을
 -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마을
 - 마을영농으로 인해 주민 소득향상 등 효과가 큰 마을

-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기업 등과의 상호 보완·협력
- 수준이 높은 마을/법인 등
- 사후관리: 도에서는 시·군 발굴대상중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육성

경북형 마을영농사업 개요

- 사업명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 사업량 : 5개소 내외
- 추진형태 : 마을영농(*일본 집락영농 벤치마킹 보완, 지역특성화)
- 영농형태 : 마을주도형, 농협참여형, 기업주도형, 혼합형
 - *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운용
- 경영규모 : 경영수지 분석에 따라 유동적(자율설정)
- 지원내용 : 마을당 3억원 내외(“마중물” 개념)
 - 공동 시설(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비, 기반정비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W성 사업비(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 * 향후 마을단위 소득확충 위한 각종 연계사업 우선 지원
- 대상마을(지역)
 - 마을단위 협업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
 - 농지 집적화, 공동이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을
 - 고령농, 소농 등 개별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마을
 - 마을영농으로 인해 주민 소득향상 등 효과가 큰 마을
 -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기업 등과의 상호 보완·협력 수준이 높은 마을/법인 등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마을단위 영농회, 마을영농 법인체

표 5-1. 경북형 마을영농 실시 현황

관리번호	참여농가수	영농규모 (재배작목)	지원시설	경영성과
2013-1	29호	23ha (참쌀, 콩)	곡물건조기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2013-2	32호	95ha (벼,콩,감자)	저온저장고, 벼집하장, 지게차등	노동력 절감 일자리 창출 15명 농가소득 증대
2013-3	7호	15.2ha (쌀,수박,호박)	비닐하우스 공동작업장 콤바인등	노동력 절감 일자리창출 15명 농가소득 증대
2014-1	6호	14ha (호두,콩,돼지감자)	기반정비 농기계,호두식재, 창고임대등	소득작목 개발(호두)
2014-2	18호	22ha (뽕나무,오디)	수확용차량,전동가위, 포크레인,잡실,뽕밭조성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2014-3	12호	20.9ha (벼,미나리,참깨)	미나리하우스판매장 관정,승용제초기등 농기계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증대
2014-4	17호	20ha (쌀,벼섯)	농기계창고 및 농기계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증대
2014-5	17호	25ha (벼,채소,고추)	채소시설,체험장,육묘장, 창고, 농기계등	노동력 절감, 농기계 축소, 소득증대
2015-1	48호	12.3ha (쌀, 오이)	시설하우스, 농기계	일자리 창출,마을구성원 전원참여, 소득증대
2015-2	29호	59ha (벼,잡곡,고추,산채)	색채선별기, 설계용역비, 브랜드개발비	농가소득증대
2015-3	36호	14.9ha (벼, 표고버섯)	시설하우스, 버섯관련 기자재	농가소득 증대
2015-4	52호	54.5ha (벼,포도,자두)	공동육묘장, 다목적 창고, 농기계, 농지임차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증대

3.2. 마을영농의 특징·성과·과제

□ 특징

- 2013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3개 마을영농의 실태를 중심으로 경북형 마을영농의 특징 및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경북형 마을영농의 특징은 첫째, 마을사업 대상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산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영농의 조직화 내용도 수도권 부문의 조직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서 나아가 소득작목 개발 또는 가공부문의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 안동 금계리: 벼와 콩이 주요작목이었으나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동지역의 찰떡 메이커(버버리 찰떡)과 계약을 통한 찹쌀 계약재배단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찹쌀을 이용한 소주개발을 시도
 - 문경 신왕영농조합 : 비교적 논 규모가 큰 마을로 일반벼 중심의 재배에서 국립종자원과 종자용 벼와 콩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시키고 있으며, 마을 공동육묘장을 활용하여 채소재배를 시도
 - 봉화 석평리 범들마을: 당초 벼와 고추가 주작목이었으나 고추, 부추, 수박, 당근등 부작목을 도입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농작업의 공동화도 논농업에 한정하지 않고, 밭의 이용도 공동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도 사업내용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지원
 - 안동 금계리: 건조시설 1식(찰벼 건조용 시설)
 - 문경 신왕영농조합: 저온저장고, 벼 집하장, 부대시설 9종(벼, 콩 관련시설)
 - 봉화 범들마을: 비닐하우스, 공동작업장, 콤바인, 부지정비, 농기계·창고 임차, 교육·홍보비

- 지역내 전담 멘토를 구성하여 수시 컨설팅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경북형 마을영농 전담 컨설팅 및 교육·홍보 팀을 구성하여 지원
 - 지역내에서는 행정, 기술센터, 농협, 담당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운용
 - 도단위에서는 (재)농민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교수,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

□ 성과

- 마을영농의 성과로서는 첫째, 마을영농을 통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킴.
 - 대형농기계를 공동 구입 및 이용을 통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노동력 절감.
 - 개인별 농기계구입을 금지시키고,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
- 둘째, 주작목-부작목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작목 도입등 작목의 다양성 증대
 - 주작목: 단지적 이용을 통한 영농효율성 및 품질제고
 - 부작목: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 도입 및 경영의 다각화 추진
- 셋째, 여유 노동력을 활용 농외취업, 새로운 작목 및 사업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 잉여노동력(여성)의 농외취업자 증가, 잉여노동력을 활용한 부작목 도입
 - 신왕영농조합 참여농가의 경우 2015년 현재 일자리 창출 15명, 농가소득 415백만원 증가
- 넷째, 공동영농을 통하여 공동체 기능의 활성화를 가져왔음.
 - 안동 금계리: 마을여행, 마을행사 활성화
 - 문경 신전마을: 폐쇄되었던 구관장 운영 재개, 공동취사 등 마을 활성화
 - 봉화 범들리: 공동취사와 마을행사 활성화

- 다섯째, 마을 영농이 활성화 되면서 귀농·귀촌자의 유입이 활성화됨.
 - 마을영농을 통하여 일자리 확보

□ 과제

- 대표 및 리더에 대하여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마을영농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참여농가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
- 소득작목을 개발 하더라도 판로확보와 가격변동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주작목의 경우 계약재배등을 통한 판매 안정성이 높으나, 부작목의 경우 판로, 가격변동으로 사업의 안정성 저해

제 6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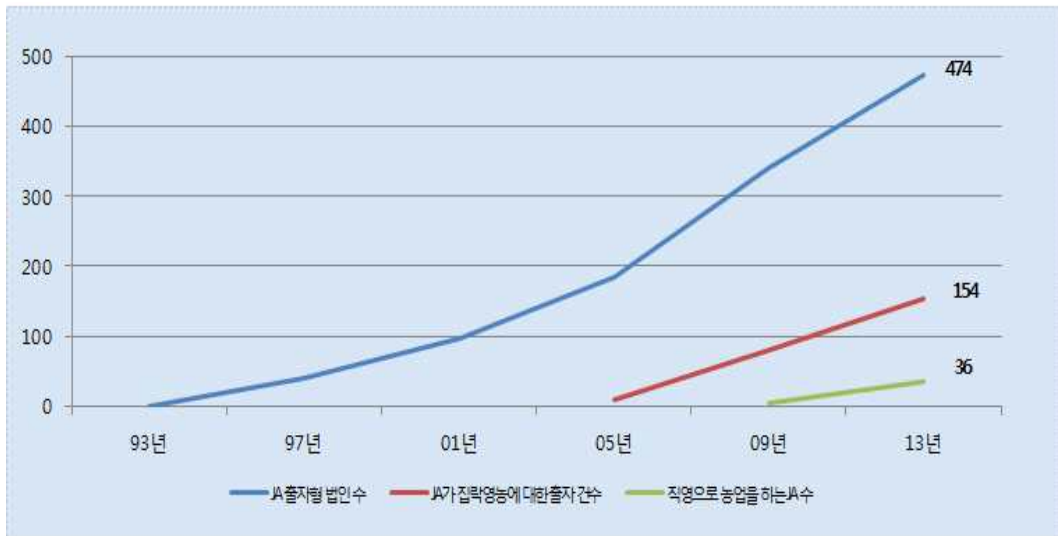
일본의 JA출자에 의한 집락영농 사례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지의 유희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생산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JA출자형 농업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경영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규취농자의 육성 및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우수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05년 이후 집락영농조직에게 JA가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농지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농업생산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법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후계인력의 확보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

1. JA출자형 농업법인 현황

- JA출자형 농업법인은 JA 또는 연합회조직이 출자한 법인으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을 의미함. JA의 정의에 의하면 JA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을 JA출자형 농업법인이라 함.
-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관한 전국조사(2013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JA출자형법인은 474개가 있고, 그 밖에 JA로부터 출자를 받은 집락영농법인이 154개, 직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JA가 36개로 나타나고 있음.
- JA출자형법인의 수와 JA로부터 출자를 받은 집락영농법인의 수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JA출자형 농업법인의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그림 과 같음. 수도작 생산중심 법인이 69.0%, 수전 및 전작 작업위탁중심 법인이 52.2%, 노지야채 생산중심 법인이 42.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JA출자형 농업법인의 경영면적별 법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와 같음. 표에 의하면 10~30ha의 경영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법인이 35.7%, 30~50ha의 경영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법인이 15.4%, 5~10ha의 경영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법인이 1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6-1. JA출자형 농업생산법인의 종류와 추이



자료: JA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관한 전국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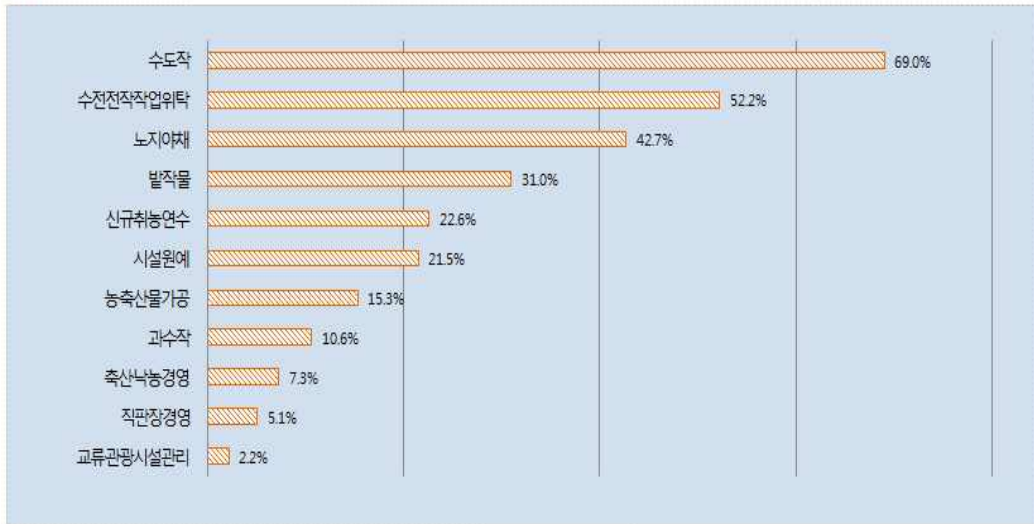
표 6-1. JA 출자형 농업생산법인 중 수전경영 규모별 법인 수 구성비

	경영면적	
	수전면적	중수전면적
1ha미만	4.3	5.9
1~5ha	10.6	8.3
5~10ha	10.6	8.3
10~30ha	35.7	41.7
30~50ha	15.4	16.2
50~70ha	8.0	9.0
70~100ha	5.1	4.8
100ha 이상	10.3	5.9
합계	100.0	100.0

주: 경영면적은 수전면적과 작업수 위탁면적을 합산한 것임

자료: JA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관한 전국조사」

그림 6-2. JA출자형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분야(전체:274, 복수응답)



자료: JA 2013년 JA출자형 법인에 관한 전국조사

2. JA출자형 농업법인의 경영과제

- 2013년 JA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JA출자형 농업법인의 주요 경영과제는 생산조건이 나쁜 농지가 많다는 대답이 76.6%를 차지하고 있음. 이 외의 주요 문제점은 수도작 중심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력에 대한 연간 고용문제 들고 있음. 또한 법인경영체로서 노동력 확보 및 인재육성의 어려움과 설비투자의 어려움, 경영수지의 안정화 등 다양한 경영과제가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전체의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의 생산 대상 농지로 지정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음.(특히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또한 연중 노동력의 가동을 위해 노지채소재배의 작부체계도입

(50.5%), 시설원예의 도입(30.5%), 농협으로부터 농업관련사업의 수탁(26.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숙련자와 종업원을 2인1조로 하여 작업노하우를 전승하는 OJT방식을 도입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음. 시정촌과 현을 중심으로 농업후계자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제 7 장

들녘경영체의 육성 및 사업개선 방향

1. 기본방향

- 쌀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감소와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의 안정화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쌀을 기반으로 하는 논 농업은 농가의 절대다수가 종사하고 있고, 다수를 점하는 영세 고령농가의 소득문제는 그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구조정책을 통한 전업농의 육성만으로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논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영세고령농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의 육성에 있어 지역농업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전업농 그룹과 영세 고령농 그룹이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존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지역의 특성과 경영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영모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개별농가 관점 보다는 들녘의 관점

에서 농지유통화, 농기계소유·이용, 생산 및 판매계획등 경영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마을영농시스템 구축

- 들녘경영체 육성은 지역농업 전체를 시야에 두고 지역농업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단순히 영농규모화의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로서 전업농과 고령 중·소농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영농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들녘경영체가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벗어나 주년 영농체계를 구축하여 들녘 및 농가의 생산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참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함.

□ 들녘경영체 발전단계에 입각한 맞춤형 모델개발 및 지원

- 들녘조직이 영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경영모델의 구축과 경영자의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들녘경영체의 모델은 농업지대적 조건과 경영주체적 조건으로서 마을을 리더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들녘경영체의 모형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정태적 모형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경영을 내실화하

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경영체의 경영능력 수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영발전 유도가 필요함.

□ 들녘단지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 쌀 단작 중심의 논농업을 복합·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 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또한 들녘단지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에만 전념해온 농업인으로서 경영체의 관리·운영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음. 들녘단지에 대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들녘중심의 인재양성, 교육·홍보·사후관리 체계 구축,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들녘단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들녘경영체 단계별 발전모형과 육성방안

2.1. 단계별 발전모형

- 들녘경영체의 발전단계를 예비단계, 경영체 성립단계, 경영체 발전단계, 경영체 고도화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예비단계는 법인화 이전단계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서 들녘경영체 후보군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직에서는 재배기술협정, 일부 농작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관리가 개별농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임.

- 둘째, 경영체 성립단계는 예비단계에서 조직강화를 통하여 법인화가 이루어진 단계로서 주요농작업의 공동화, 집단전작에 의한 동계작물재배, 판매의 조직일원화등 조직중심의 경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셋째, 발전단계는 경영체의 경영전략에 따라 전문화형과 복합화·다각화형으로 구분됨. 전문화형은 쌀을 비롯한 곡물생산에 전문화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갖추고 각 단계의 부가가치 확보를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형태임. 이러한 형태는 대규모 평야지대의 모형으로서 RPC가 중심이 되어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음. 복합화형은 밭작물 재배가 활성화된 중·소규모의 들녘에서 개별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작목을 조직에 내부화하여 조직중심의 복합경영을 실시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넷째, 고도화단계는 발전단계의 생산·기초가공중심의 결합에서 대규모 자본출자를 통하여 관련 고차가공·유통·관광·서비스 기능으로 상품의 가치사슬을 확장하여 6차산업화 형태로 발전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음.

표 7-1. 경영발전 단계별 경영모형

		예비단계 (재배단지)	경영체 성립단계	발전단계		고도화단계
			생산조직형	쌀 전문형	쌀 복합형	경영다각화
조직목표		관로확보 및 수취가격 안정화	비용절감·소득증대	수익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 구조	경영 특성	쌀 작목반 및 재배단지	주년경영체계 확립	가공· 유통통합 경영체계	복합 작목의 도입	전·후방 관련 사업의 진출
	공동 경영 내용	기술협정 농작업 부분공동화	주요작업공동화 동계작물도입 판매의 일원화	생산·가 공·유통 일관경영	복합 경영	고차가공, 체험, 관광 연계

2.2. 단계별 육성방안

□ 예비단계: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술지원 및 법인화 유도

- 예비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군으로서 조직강화를 통하여 임의조직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재배단지, 작목반을 법인화를 통하여 들녘경영체로 발전을 유도하는 단계임.
-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주체가 되어 교육·홍보, 농업기술의 공동화·규격화, 농기계의 공동이용, 계약재배를 통한 판매공동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먼저, 들녘단위의 논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들녘단위의 조직관리를 체계화 해야 할 것이다. 들녘단위의 조직강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별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자, 비료, 등 생산관련 지원을 들녘단지로 통합을 유도하고, 농협, 가공유통업체 등과의 계약재배를 지원함.
- 둘째, 공동경영의 이해와 경영관리의 기초교육을 통하여 공동경영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영세한 작목반의 통합을 유도하여 단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조직의 애로사항을 수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멘토를 구성하여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7-2. 예비단계의 들녘경영체 육성체계

담당주체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단체	들녘단위의 논농업 발전계획 수립, 지구단위별 들녘관리체계구축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들녘별 작부체계 개발 및 기술지도, 조직화·법인화 교육지도
농협	계약재배 지원, 수확후 관리체계 확립

□ 경영체 성립단계: 들녘경영체 인증, 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중심 지원

- 경영체 성립단계는 법인화를 거쳐, 경영발전계획에 대한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하여 들녘경영체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쌀을 주작목으로 주년영농체계의 구축, 작목반의 합병을 통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경영단위를 확보하고 연간조업이 가능한 수준의 경영조직과 조직중심의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일차적으로 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원의 참여와 규모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간작목이라 할 수 있는 쌀을 중심으로 기타 식량작물과 연계하고, 이앙, 방제, 수확등 주요농작업과 수확물의 판매공동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및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경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또한, 들녘경영체의 경영관리가 중요한 만큼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컨설팅 지원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들녘경영체 관리카드를 활용 경영내용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7-3. 들녘경영체 선정 기준

구 분	들녘경영체 자격기준
운영주체	농업법인, RPC, 농협
공동영농규모	평야지대 100ha, 중산간지대 50ha이상
조합구성원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참여 정도 공동영농 규모의 50% 이상
공동영농의 범위	관매의 공동화 필수, 주요작업(육묘,방제)공동화
비용·수익배분	회계 장부상 관리 확인

□ 경영 발전단계 :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화, 복합화 경영기반 강화

- 경영 발전단계는 경영체 성립단계에서 수립한 경영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당초 수립된 영농계획에서 제시된 조직화, 규모화, 수익모델이 일정 성과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법인중심의 사업운영체계 확보, 사업 규모의 확대, 수익모델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성과의 확보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성과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 농기계의 이용체계의 확보가 중요함. 노후화된 개별 소유·이용 농기계의 처분과 공동작업이 필요한 핵심적인 농기계 및 시설의 조직 중심의 소유·이용 체계, 주년 영농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수익이 실현되고 자본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하며, 이익잉여금의 일부 적립을 통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일정수준 이하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시 손금처리를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 단계에서는 경영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의 전문화, 또는 복합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자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체의 경영기반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7-4. 들녘경영체 전문화·복합화지원 선정 기준

구 분	전문화·복합화지원 선정 기준
운영주체	들녘경영체 인증후 3년이상 경과
공동영농규모	선정이후 10%이상 증가, 동계작물 도입
조합원 구성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참여 정도 공동영농 규모의 50% 이상
공동영농의 범위	농작업의 50%이상 공동화
경영관리	영농일지, 회의록등 경영기록 유지
법인자산	영농장비 및 시설의 법인 내부화, 자산 5억이상
경영수지	2년 이상 흑자경영
자본금 적립	2년 이상 자본적립

□ 경영 고도화 단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6차산업화 추진

- 경영 고도화단계는 경영발전을 통한 경영체로서 기반이 확립된 단계로서 경영체 수익증대를 벗어나 고용증대, 소득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일정 기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의 고용 및 소득창출과 연계된 6차산업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체의 지역리더로서의 역량 확보와 함께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농업인턴제도를 활용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도울 수 있어야 함. 아울러 6차산업화 관련 시설 장비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선도적인 들녘경영체에 대하여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만이 아니라 6차산업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울 수 있어야 함.

표 7-5. 들녘경영체 경영고도화지원 선정 기준

구 분	경영고도화지원 선정 기준
운영주체	들녘경영체 인증후 5년 이상 경과
공동영농규모	선정이후 20%이상 증가, 동계작물 유지
조합원 구성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참여 정도 공동영농 규모의 50% 이상
공동영농의 범위	농작업의 80%이상 공동화
경영관리	영농일지, 회의록등 경영기록 유지
법인자산	영농장비 및 시설의 법인 내부화, 자산 10억이상
경영수지	흑자경영 유지
자본금 적립	자본적립 유지
인력확보	신규고용 실적
지역기여	지역기여 실적

2.3.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2.3.1. 논의 이용을 제고를 위한 논농업 다양화

□ 과제

- 쌀의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쌀의 소득원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쌀의 생산과잉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을 하락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논농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쌀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타작물 재배를 통하여 식량자급율을 향상시키므로써 쌀 수급 및 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경지이용을 제고를 통하여 식량자급율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함으로써 논의 소득기반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논 농업의 핵심 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들녘경영체”는 이러한 쌀의 수급조절과 타작물 재배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타작물 재배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에 까지 대책수립이 필요함. 이전에 정부가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 추진한바 있으나 타작물의 수익성과 판로문제, 생산기반의 부조화등으로 사업성고가 부진했던 사례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됨.

□ 개선방안

- 논외의 이용을 제고를 위한 타작물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타작물의 계약재배에 의한 단지적 도입이 필요함. 지자체, 농협이 주축이 되어 타작물 재배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작부체계 설정, 계약재배 지원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생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농지 범용화사업과 같은 생산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타작물 재배단지의 기계화 및 수확후 처리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이 필요함. 넷째, 타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손실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함.

표 7-6. 들녘경영체의 논 이용율 제고 및 타작물 활성화 방안

	활성화방안
생산기반	단지화 방식, 농지이용 범용화기반조성, 지역여건을 고려한 작부체계 구축
시설·장비	전용 농기계 보급, 수확후 관리 시설 확보
유통	계약재배등을 통한 판로확보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통한 소득보전

2.3.2. 들녘단위의 농기계 이용효율화 지원

□ 과제

- “들녘경영체사업”에 따른 일차적인 효과는 대형농기계·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라 할 수 있음. 들녘경영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기계의 공동이용 및 생력화 기술도입을 통하여 10%내외의 쌀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작업단계별로 보면, 농작업의 공동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서 시설·장비 지원이 이루어진 육묘와 방제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이와같이 육묘와 방제이외의 작업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은 들녘내에 개별농가 보유 기계가 많은 관계로 개별 소유·이용형태로 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향후 들녘내 농기계의 적정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들녘내 농기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농기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개선방안

- 먼저 농기계의 감축부분에서는 저성능 중·고 농기계의 폐기지원, 개별이용으로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대형농기계는 들녘경영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들녘내 시설·장비의 운용이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기계은행사업의 농기계 책임운영자 지정시 들녘경영체를 우선 지정

토록 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비용의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3.3. 농지의 규모화·집단화 지원

□ 과제

- 들녘단지의 농기계 이용효율화를 위해서는 들녘단지 영농규모화 및 농지이용의 집단화가 요구됨. 현재 들녘경영체의 농지이용 실태를 보면, 임대차·위탁영농 중심의 영농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한 제도로써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규모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전업농, 후계자등 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들녘의 영농규모화·집단화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 위탁영농의 제도적 지침이 농지유동화를 저해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음.

□ 개선방안

- 첫째, 현재의 대인(對人) 중심에서 대지(對地)중심의 농지유동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 선정시 전업농 기준보다 들녘내의 농지수요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하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임차 불가능한 상태로 들녘 내에 존재하는 비농업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농지 임차가 가능하도록 농지 법령 개선 필요함.
- 셋째,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8년 자경 시 양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사업참여를 저해하고 있음. 들녘경영체 참여 농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2.3.4. 적정 위탁수수료 기준 설정을 통한 영세농 보호

□ 과제

- 들녘경영체 육성은 논 농업의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60%이상의 점하고 있는 영세 고령농의 영농편의성 제고와 소득 보완기능도 중요함. 그러나 일부 경영체의 경우 소수의 자본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 영세 위탁농가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 대형 시설·장비등 경영체 지원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비용절감 소득 증대 부분의 배분을 소수의 경영진 위주로 가져가면서, 위탁농가의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 예를 들면, 위탁수수료 산정시 사업에 따른 비용절감부분이 있음에도 사업전의 지역관행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음.

□ 개선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배분에서 영세 고령 위탁농가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수수료의 산정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행정·농협등의 지도를 통하여 적정수수료 책정등 영세·고령농가의 이익의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일본의 집락영농의 경우 마을회의를 통하여 집락영농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농지권리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3.5. 농협의 들녘경영체 참여 활성화

□ 과제

- 들녘경영체의 다수가 법인경영관리 측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음. 기계의 갱신에 필요한 적립금 비축, 자금관리, 경영의 투명성 확보등 경영의 영속성 확보에 필요한 경영관리 업무가 미숙한 상황임.
- 농협이 쌀의 생산·유통계열화의 핵심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곡 확보는 물론, 수확이후의 체계적인 작업관리를 위해서는 들녘단지와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함.
- 현재 다수의 농협이 들녘경영체로 참여는 하고 있으나, 단순히 계약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들녘의 경영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뭄.

□ 개선방안

- 리-더 기능이 취약한 들녘단지에서는 농협이 스스로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되어 들녘경영에 참여 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됨.
- 나주 봉황농협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 직영체계를 구축하여 농지의 집단화, 일관작업체계에 의한 들녘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부족분은 인근의 전업농 그룹과의 연대를 통하여 보완하고 있음.
- 일본의 집락영농의 경우 경영컨설팅등 경영지도와 함께 농업생산법인 출자 육성제도를 활용 집락영농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음.

표 7-7. 봉황농협 모델 사례

조직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용한 완전위탁 중심의 단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의 과부족부분은 전업농과 연대 · 농기계 및 시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 사업 인력: 13명 - 책임자 1명, 오퍼레이터 8명(농기계 3명, 무인헬기 5명), 보조 4명
사업실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위탁 사업량: 198농가, 120ha, (육묘-수확-건조-운반) · 육묘 및 항공방제 사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사업량: 95천상자, 400ha직파 - 항공방제사업량: 관내 900ha, 450호, 관외 600ha · 건조·수매량: 2,400톤, 6만가마 · 농한기 활용: 고추·배추육묘, 절임배추가공, 배 선과작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수익향상: 32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경영비 절감: 100백만원 - 공공비축사업 참여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 102백만원 - 공동판매를 통한 수취가격제고: 20백만원 - 친환경쌀 계약재배에 의한 수취가격제고: 100백만원 · 인력운용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한기 배선별 및 절임배추사업을 도입 주년영농체계 구축 · 경영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손익 185백만원 실현

2.3.6. 들녘경영체 성장단계별 육성을 위한 경영진단체계 구축

□ 과제

- 현재,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는 들녘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업 신청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영체가 제시하는 사업신청서 자료에 근거하여 들녘경영체를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구상하는 성장단계별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체의 경영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개선방안

- 경영의 성장단계별 육성을 위해서는 Plan - Do - See의 절차를 통하여 경영지표를 평가하고 경영체의 과제를 도출하고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영의 내용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관리 카드 형태의 기초자료, 경영체의 경영계획서, 경영의 성과평가 자료를 통하여 경영진단이 가능 할 수 있어야 함.
- 경영관리 카드는 전체 들녘조직에서 기장되어야 할 경영체의 기초적인 경영활동 기초대장으로서, 대표자 인적사항, 위치 및 들녘의 특성, 들녘단지 규모 및 농가참여 현황, 들녘단지의 영농현황, 농기계 및 시설현황, 지원사업비 및 투자현황, 교육이수현황 관련 항목이 조사되어야 함. 지자체가 관내 들녘조직의 관리대장으로 활용.
- 사업계획서는 경영체 성립이후 사업신청시 작성되는 자료로서 경영목표, 경영현황 및 개선방향, 생산요소 조달계획, 경영조직, 경영조직의 운영과 관리, 성과달성 연차계획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록장에서는 규모화지표, 조직화지표, 매출지표, 생산성지표, 고용지표, 농가의 소득지표 관련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음. 성과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농기록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데, 경영체 발전단계 이후의 경영평가에서 핵심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자료임. 농가경제 및 생산비조사 기장농가 수준의 기록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농산업 통계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추진의 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영의 효율성, 수익성 뿐만이 아니라 들녘의 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마을영농의 개념에 입각하여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인력 자원의 참여, 경영성과, 지역예의 공헌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서 들녘경영체의 정체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표 7-8. 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들녘경영체 경영 계획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단위와 지역과제 및 비전의 명확도 ○ SWOT분석 및 전략의 적절성 ○ 법인화 여부 ○ 조합원 및 리더 역량강화 교육 이수 ○ 지자체 지원 및 참여 여부와 강도 ○ 지원조직 활용 여부(법인, 전문가조직 등)
(2) 조합 및 주민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수·비용 ○ 조합원의 출자비율(출자자/참여자) ○ 비조합원(주민) 들녘경영체 사업 참여 비율 ○ 시설 및 장비 활용 제공 단가의 합리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교육 및 정리여부 ○ 조합원 배당 여부 ○ 조합원 소유 시설 및 장비의 법인 출자 전환 여부 ○ 신규 조합원 참여 여부 ○ 귀농귀촌자 참여 여부
(3) 지역자원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연자원 활용 ○ 지역시설자원 활용 ○ 지역 유휴자원 활용 ○ 지역 전통문화 활용 ○ 전략적 제휴 등 활용여부
(4) 경영 성과	①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 창출수 ○ 경영체 신규 참여 및 출자자 수
	② 부가가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생산지속성(영농포기자 비율) ○ 매출액 추이 ○ 법인 자산 축적(현금 및 시설과 농기계 등)
(5) 지역사회 공헌	① 사회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제 해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② 지역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대비 재투자액 비율 ○ 수익금대비 지역환원액 비율

들녘경영체 관리카드

경영체 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유형				
출자현황	출자자수		출자액	
	명		백만원	
공동영농 규모	참여인원	논 면적		밭 면적
	명	ha		ha
공동영농 사업내용				
공동영농 시설·장비 현황	조합 소유 시설·장비		조합원 소유 시설·장비	
정책사업 참여현황	년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매출액 (최근3년)	년도	년도	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업손익 (최근3년)	년도	년도	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본적립 현황 (최근3년)	년도	년도	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규모화	조직화	지역공헌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평가근거	평가근거	평가근거
사업애로 요인			
향후 사업추진 계획			

부록 1

‘일본의 쌀 생산비 절감 실태’³⁾

1. 농업의 성장산업화

1.1. 일본재흥전략(총리부, 2013. 6, 2014. 6 개정)

(1) 목적

-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국에 파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립
-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설정,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추진, 새로운 시장개척

(2) 4대시장 창조전략

- ①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의 선순환 구축(건강산업)
- ②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의 실현(에너지산업)
- ③ 안전·편리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인프라산업)
- ④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관광의 성장산업화(농업)

1.2.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 (농림수산성, 2013. 12)

(1) 개요

- 농림업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산업정책)과 국토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정책(지역정책) 등 2가지 측면을 병행

3) 김태곤, 2016, 「일본의 쌀 생산비 40% 절감목표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함.

- ① 강력한 농업, ② 아름답고 활력있는 농촌 구축, ③ 그 성과를 국민 전체가 실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2) 4대 개혁 실천
 - ① 국내외 농식품 수요 확장, ② 가치사슬 구축, ③ 다원적 기능 유지, ④ 생산현장 강화 등
 - ‘④의 생산현장 강화’와 관련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업구조 개혁과 생산비 절감대책을 추진

2. 쌀 생산비 절감목표

2.1. 목표

- 향후 10년간 ‘전업농’(주업농, 후계자, 법인경영, 마을영농 등)의 농지 점유율이 전체 농지의 80%를 차지하는 농업구조 확립
- 향후 10년간 자재·유통 등 산업계의 노력도 반영하여 전업농의 쌀 생산비를 전국 평균생산비 대비 40% 절감 목표
 - 2011년 쌀생산비(현미 60kg) 16,000엔
 - 2020년 40% 절감하여 9,600엔 목표, 쌀 관세철폐에 대비
- 향후 10년간 법인경영체 수를 5만개 법인으로 증가

2.2. 시책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업농의 규모화·단지화 추진, 유희농지 발생을 억제
- 다양한 경영체 육성·확보(법인경영, 대규모 가족농, 마을영농, 신규취농, 기업의 농업진입)
- 고부가가치화·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대구역화, 수리시설 정비
- 경제계 등과 연대하여 생력(省力) 재배기술·품종 개발, 생산자재비 절감, 첨단기술농업 확립 등

3. 현행 쌀 생산비 동향

3.1. 농지점유율

- 2010년 현재 전업농이 이용하는 농지는 226만ha로서 전체 농지의 49.1% 차지
- 농림업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과 2010년간의 경영규모 변동을 보면 5ha를 경계로 그 이상 계층은 증가하고 미만 계층은 감소하고 있음.
 - 법인 경영체수는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 전업농의 쌀 생산비는 전국 평균을 대폭 하회하고 있음.

3.2. 쌀 생산비 동향

- ① 비목별 쌀 생산비(1995년 대비 2011년 생산비, 현미 60kg)
 - 쌀의 평균 생산비는 지난 16년간 약 20% 정도 감소
 - 작황 등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임.
 - 비목별로는 자기자본이자·자작지지대, 노동비, 토지개량비·조세 등이 대폭 감소
- ② 비목별 생산비 증감 동향(평균 생산비 : 18.9% 감소(19,728엔, 16,001엔))
 - 노동비 : 37.1% 감소(6,658엔, 4,191엔)
 - 농기구·자동차비 : 13.2% 증가(3,110엔, 3,520엔)
 - 비료·농약대 : 0.1% 감소(1,868엔, 1,866엔)
 - 종묘비 : 2.3% 감소(397엔, 388엔)
 - 건물비 : 73.7% 증가(464엔, 806엔)
 - 광열동력비 : 40.8% 증가(362엔, 510엔)
 - 임차료·요금 : 4.5% 감소(1,387엔, 1,325엔)
 - 기타 물재비 : 11.7% 감소(298엔, 263엔)
 - 토지개량비·조세 등 : 36.9% 감소(1,267엔, 800엔)
 - 지불 이자·지대 : 2.2% 증가(556엔, 568엔)
 - 자기자본이자·자작지지대 : 44.1% 감소(3,724엔, 2,082엔)

③ 규모별 생산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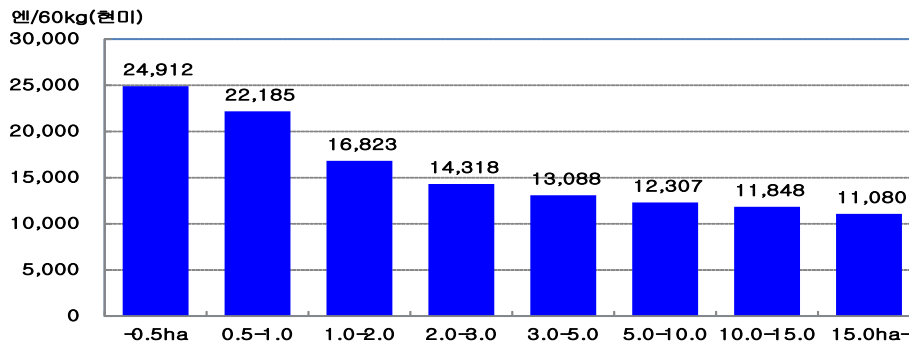
- 2011년 쌀 생산비 통계에 의하면 계층간 생산비 격차가 명확함. 한국은 규모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그림 1> <그림 2>
 - 전국 평균생산비는 60kg당 16,001엔임.
 - 쌀 식부면적 10ha이상 계층은 이미 평균생산비의 30%를 절감하고 있음.
- 단지 현상적으로는 10ha이상으로 확대해도 평균생산비의 30% 정도의 절감에 그친다는 의미이며, 10% 정도의 추가적인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함.

④ 규모확대의 한계

- <그림 1>에 의하면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감소경향은 대체로 10ha 전후에서 둔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쇼겐지(生源寺 眞一) 교수는 일본의 쌀 생산비는 ‘10ha 전후에서 절감 효과가 소멸한다’ 고 함.⁴⁾
-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경지 분산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짐.
 - 작업적기 초과, 단수·품질 하락.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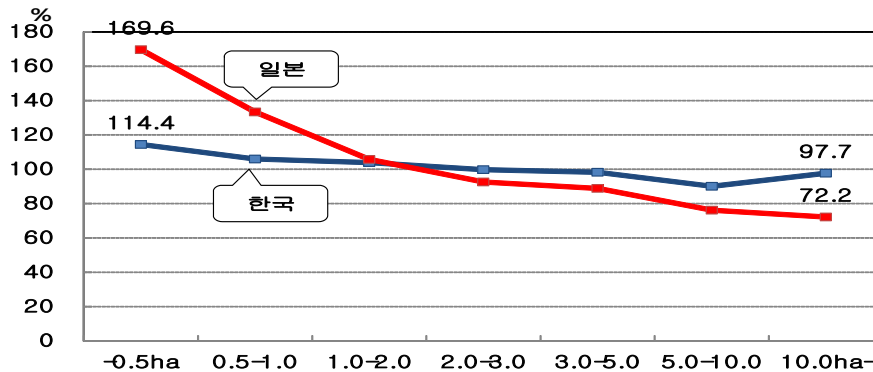
4) 生源寺眞一. 2011. 「日本農業の眞實」. ちくま新書.

그림 1. 식부면적 규모별 쌀생산비, 2011년



주 : 2011년 평균생산비는 16,001엔임
 자료 : 농림수산성 「농산물생산비통계」 2011년

그림 2. 한일간 규모별 생산비 격차비교, 2012년



주 : 평균생산비(100) 기준임.
 자료 : 한국·일본 「농산물생산비통계」 2012년

4. 생산비 절감방안

(1) 경지분산 해소

- 규모확대에 의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30%가 한계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절감방안이 필요함.
- 우선 경지분산 해소가 필요함. 규모확대 할수록 분산되는 경지를 교환 분합·마을영농 등을 통한 단지화가 필수적임.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역

할이 기대됨.

(2) 직파재배

- 직파는 육묘나 이앙 등의 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절감됨. 평균 생산비 대비 9~20% 절감효과가 있음.⁵⁾
- 또한 이앙재배보다는 성숙기가 늦어지는 특징이 있어 작업적기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음.

(3) 용도별 다양한 품종 개발

- 최근 용도별 쌀 생산이 새로운 조류로 정착하고 있음. 용도에 적합한 쌀 품종을 개발하여 생력재배 등 가능한 농법을 적용하면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식·외식용으로 이용되는 중·저가의 업무용 쌀은 단수가 높은 품종이 유리하며, 특히 사료용 쌀은 고단수 품종을 도입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품종을 조합하여 경작하면 작업적기가 분산되는 동시에 냉해나 병해충 등의 위험도 분산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4)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 작물의 생육상태, 수온, 작업과정 등에 관한 현장의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 인터넷을 통하여 PC에서 해석, 효율적인 작업 내용·시기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작업의 효율화, 로봇 주행 농업기계 활용,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작업보조 장치 등도 생산비 절감의 수단이 될 수 있음.

5) 일본농업신문. 2015. 12. 18

(5) 경영방식 개선

- 쌀·답리작 이모작, 쌀·채소 윤작, 경종·축산 연대 등의 ‘복합경영’, 6차산업화와 같은 ‘다각경영’ 등은 노동력·기계 이용의 분산이나 연중 활동 등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경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복합경영이나 다각경영이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음.

(6) 사료용 쌀 생산비 절감 가능성

- 농림수선성은 앞으로 생산을 대폭 확대할 사료용 쌀에 대한 생산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함.⁶⁾
 - 다수확 품종과 다비재배 : 16~19% 절감
 - 직파재배기술 : 9~20%
 - 윤작 : 3%
 - 규모확대 : 25%
- 농림수선성은 사료용 쌀의 생산비를 2025년까지 50% 절감한다는 목표임.

(7) 생산비 절감노력의 의의

- 일본재흥전략(2013, 2014)과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2013)에서 제시된 쌀 생산비 절감 시도는 구조개선 등 농업인이나 산업계 노력의 필요성과 농업의 성장산업화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음.
- 단지 쌀 생산비가 하락하면 바로 관세철폐 이후 수입산 쌀과 경쟁하는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격차가 존재함.

6) 일본농업신문. 2015. 12. 18

부 록 2

주요 들녘경영체 특성

1. 단작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덕산온천로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배나다리안길 26-17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예산군은 충남도청과 약 6km에 위치해 있고, 전형적인 중산간 벼 단작 지역으로 윤봉길의사의 생가가 있는 충절의 고장임 · 온천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임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16ha/47호 · 농가 경영규모 : 13.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6.6ha → '15년 13.3ha(100%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58 → '15년 117(101%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64ha → '15년 116ha · 공동방제 : '14년 64ha → '15년 116ha · 기경·이양·수확 : '14년 35ha → '15년 8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생력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파종상 비료 및 피롤농법)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공동경영 촉진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8% 절감(원/10a) : '14년 946,238 → '15년 891,348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296,118원(통계청 평균소득의 52.8%) · 공동농작업 수익사업 추진(덕산농협 공동육묘장 임대)으로 '16년 35,000장 육묘 실적으로 17백만원 수익 창출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신대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327번길 26-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중부권의 내륙지역인 벼 단작 평야지역임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53ha/14호 · 농가 경영규모 : 11.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13.1ha → '15년 11.3ha(14% 감소) · 경영의 다각화 측면 : 시설원에 0.3ha(시금치, 열무 등)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101 → '15년 87(13% 감소) · 시설원에 조수입(백만원) : '14년 1 → '15년 6(500%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33ha → '15년 40ha · 공동방제 : '14년 53ha → '15년 53ha · 기경·이양·수확 : '14년 33ha → '15년 46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에 의한 볍씨 소독 및 측조시비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이모작 추진으로 소득 다양화('16년 국산밀 10ha 추진) · 수출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7% 절감(원/10a) : '14년 738,243 → '15년 696,040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320,749원 (통계청 평균소득의 57.1%) · 소득 확대를 위한 고품질 수출단지 육성 · 이모작 추진으로 자급율 및 소득 제고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철원 동송농협	농가명 (연락처)	
주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동로 30번길 67-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태백산맥이 양구, 화천 경계를 따라 남서방으로 뺏은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한탄강과 화강이 동송읍과 갈말읍에 퇴적되어 평야를 이룸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31ha/169호 · 농가 경영규모 : 2.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2.7ha → '15년 2.7ha · 경영의 다각화 측면 : 고칼슘쌀 재배로 수출단지 육성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26 → '15년 26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36ha → '15년 231ha · 공동방제 : '10년 210ha → '15년 231ha · 기경·이양·수확 : '10년 30ha → '15년 76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고칼슘 시비 2회 처리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기능성(고칼슘)쌀 생산 및 수출단지 육성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0.2% 증가(원/10a) : '10년 658,509 → '15년 659,667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74,141원 (통계청 평균소득의 84.5%) · 쌀 소득 정체로 논에 타작물(시설원예) 전환 계획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대한경기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공리 963-3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3

경영실태	
지역특성	· 서산 A 지구 간척지 지역으로 쌀 단작지역임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13ha/156호 · 농가 경영규모 : 73.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2년 26.7ha → '15년 73.3ha(174%)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공동육묘장을 '14년 도에 받아 운영중에 있음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육묘장을 통해 28,000장을 공동육묘하여 약 1,900만원의 소득 을 달성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2년 95ha → '15년 213ha · 공동방제 : '12년 140ha → '15년 213ha · 기경·이양·수확 : '12년 95ha → '15년 213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수를 이용한 벼 발아기술과 논 못자리 녹화기술 · 평당 50주 소식재배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14년에 20,000장에서 '16년 현재 28,000장으로 공동육묘 확대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감자(2ha), 무(2ha) 재배 및 원예작물 시설재배로 도시소비자와 교류 추진 중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7.4% 절감(원/10a) : '12년 824,731 → '15년 763,355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861,53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59.0%)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덕산온천로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낙상서길 57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예산군은 충청도청과 약 6km에 위치해 있고, 전형적인 중산간 벼 단작 지역으로 윤봉길의사의 생가가 있는 충절의 고장임 · 온천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임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16ha/47호 · 농가 경영규모 : 3.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3.7ha → '15년 3.7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31 → '15년 31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64ha → '15년 116ha · 공동방제 : '14년 64ha → '15년 116ha · 기경·이앙·수확 : '14년 35ha → '15년 8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파종상비료 및 피롤농법 실천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수익사업 추진(덕산농협 공동육묘장 임대)으로 '16년 35,000장 육묘 실적으로 17백만원 수익 창출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0.7% 상승(원/10a) : '14년 747,825 → '15년 753,060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375,069원(통계청 평균소득의 66.9%) · 공동육묘장 임대로 수익사업 확대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나포십자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곶리 319-2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평야지대임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친환경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99ha/118호 · 농가 경영규모 : 20.4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8년 19.6ha → '15년 20.4ha(4% 증가) · 경관농업 : '08년 0 → '15년 300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8년 233 → '15년 243(4.2% 증가) · 경관보전직불금(백만원) : '08년 0 → '15년 34.6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8년 64ha → '15년 297ha · 공동방제 : '08년 64ha → '15년 297ha · 기경·이양·수확 : '08년 → '15년 17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윤작으로 녹비작물 재배 · 온탕침법, 논독시트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친환경농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윤작체계 도입 · 공동생산에서 판매까지 공동경영 체계 구축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7% 절감(원/10a) : '08년 855,274 → '15년 805,989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699,223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24.6%) · '철새도래지쌀' 10년 연속 우수브랜드쌀 선정 및 25개국 수출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동송재배단지	농가명 (연락처)	
주소	강원도 동송읍 오덕로 275-23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태백산맥이 양구, 화천 경계를 따라 남서방으로 뺏은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한탄강과 화강이 동송읍과 갈말읍에 퇴적되어 평야를 이룸
경영유형	· 벼 단작 평야지역(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20ha/52호 · 농가 경영규모 : 20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8년 11ha → '15년 20ha(81.8%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8년 119 → '15년 217(82.3%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8년 35ha → '15년 76ha · 공동방제 : '08년 120ha → '15년 12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축조시비 + 생육조건에 따른 이삭거름 시비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고품질쌀 공동생산기반 구축 · '철원오대쌀' 브랜드 구축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5.1% 절감(원/10a) : '08년 762,302 → '16년 647,499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637,227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13.6%) · 젊은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공동경영 공감대가 확산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주)우리원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2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역
경영유형	· 벼 단작(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45ha/35호 · 농가 경영규모 : 11.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11.3ha → '15년 11.3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146 → '15년 146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12ha → '15년 24ha · 공동방제 : '10년 45ha → '15년 45ha · 기경·이앙·수확 : '10년 12ha → '15년 36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포트묘를 이용한 소식재배 · 천연농자재 자가제조 사용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유기농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8.4% 절감(원/10a) : '10년 779,981 → '15년 714,286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775,557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38%)

2. 이모작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둔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1005번길 16-12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으로 현재까지는 벼 일모작이었으나, '16년도부터 밀(이모작)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17년부터 사업다각화로 벼 육묘 이후에 육묘장의 효율성을 위해 꼬마감자를 재배할 계획중에 있음.
경영유형	· 벼 이모작 평야지대 (쌀 + 밀)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09년도 110ha/119호 '16년도 200ha/180호 · 농가 경영규모 : 11.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09.12 고품질쌀 생산단체 표창(대통령 표창장) · 경영규모 : '08년 14.0ha → '15년 10.0ha(0%) · 이모작(밀) : '08년 0ha → '15년 2ha · '16년 육묘장 1동(200평)에 꼬마감자 시범적 재배 후 '17년부터 추가로 3동을 재배할 예정.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단작에서 논 이모작 확대와 사업다각화 추진 · '15년도부터는 밀 재배로 약 1,000만원 매출액 달성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방제는 아산시에서 공동으로 방제를 실시 · '09년도부터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공동육묘 실시 중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둔포농협RPC와 계약재배를 통해 품종통일 및 재배매뉴얼 통일하여 고품질 쌀 생산하여 '아산 맑은쌀'로 출하 중 · '09.12 고품질쌀 생산단체 표창(대통령 표창장)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들녘경영체 전체경영규모가 110ha에서 200ha로 확대. · 답리작 확대를 위해 '15년에 시범적으로 밀 2ha 재배로 약 1000만원의 매출액 달성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5.5% 절감(원/10a) : '08년 717,750 → '15년 606,821 · 이모작 밀 2ha 재배로 약 1000만원 매출액 증대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694,46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23.7%) · 답리작 확대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왕대리최적경영체	농가명 (연락처)	
주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터1길 74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으로 논밭 혼합지역임
경영유형	· 논밭 혼합지역[쌀 + 원예(고구마, 고추, 땅콩)]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89ha/42호 · 농가 경영규모 : 6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논) '08년 18ha → '15년 6ha(66% 감소) 밭) '08년 6ha → '15년 6ha · 공동농작업 : 마을법인 설립 후 공동농기계 센터 운영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8년 213 → '15년 71(66% 감소)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8년 8ha → '15년 89ha · 공동방제 : '08년 8ha → '15년 89ha · 기경·이앙·수확 : '14년 24ha → '15년 6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약제침지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농작업 확대 '08년 0% → '15년 70%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3.6% 절감(원/10a) : '08년 599,669 → '15년 577,846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861,53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53.6%) · 마을법인의 공동경영체로 전량 계약재배 실시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금화작목반	농가명 (연락처)	
주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영암2길 37-4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준 산간지대로 과수(포도, 배 등) 발작물 재배지역
경영유형	· 중산간 복합영농지역(쌀 + 포도 + 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23ha/165호 · 농가 경영규모 : 15.0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9년 12.0ha → '15년 15.0ha · 이모작(조사료) : '09년 0ha → '16년 2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09년) 72백만원 → ('15년) 90백만원 · 이모작(조사료): ('09년) 0백만원 → ('15년)45백만원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방제 : ('09년) 250ha → ('15년) 300ha · 공동육묘 : 아자개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공동육묘장을 활용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공동방제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4개조로 운영하고, 농약을 공동구매하고 있음. · 공동육묘의 경우, 상토 및 상자처리제를 공동구매로 비용절감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이모작(조사료): ('09년) 0백만원 → ('16년)45백만원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5% 절감(원/10a) : '년 799,547 → '년 755,912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33,827원(통계청 평균소득의 77.3%)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한그루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북 익산시 금강동 1105-16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만경강변에 위치한 익산시 금강동은 우리나라 서남부의 전형적인 평야지역으로 논벼와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임
경영유형	· 벼 이모작 평야지대 [쌀 + 이모작(밀, 보리, 조사료)]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320ha/26호 · 농가 경영규모 : 64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8년 60ha → '15년 64ha(6.6% 증가) · 이모작(보리, 밀, IRG) : '08년 12ha → '15년 27.2ha(126%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8년 525 → '15년 528(0.9% 증가) · 이모작 조수입(백만원) : '08년 48 → '15년 76(58%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8년 245ha → '15년 445ha · 공동방제 : '08년 245ha → '15년 44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건강육묘를 위한 어린모 녹화장 운영 · 소식재배, 직파 등 다양한 신기술 도입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답리작 확대로 자급율 향상 및 소득 증가 · 가공용쌀 생산·가공·유통 계열화 체계 구축으로 쌀 소득기반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창출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0.7% 절감(원/10a) : '08년 681,193 → '15년 608,399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으로 주변의 농가들에게 조직화 모범사례 · 쌀 가공, 논공 등을 통한 농농업 다변화 포토폴리오 추진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하늘땅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68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

경영실태	
지역특성	전형적인 이모작 평야지대임
경영유형	· 벼 이모작 평야지대 [쌀 + 이모작(밀, 보리, 조사료)]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04ha/65호 · 농가 경영규모 : 2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쌀 경영규모 : '14년 24ha → '15년 27ha · 보리 경영규모 : '14년 3ha → '15년 4ha · 조사료 경영규모: '14년 1ha → '15년 3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공동육묘 : ('12년)전북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 공동방제 : ('15년)전북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광역살포기 설치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 → 60% 실시 · 공동방제 : 0% → 100% 실시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14년도부터 GAP 인증시범사업으로 GAP를 실시하여 고품질 쌀 생산 · 9단육묘 녹화기술(상자당 300원 절감)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보리 이모작 확대 · ('14년)보리 30ha → ('16년)60ha 로 30ha 증가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7% 절감(원/10a) : '14년 687,058 → '15년 647,706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이모작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유)제희RPC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남상로 50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3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벼 이모작 평야지역(쌀 + 이모작)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85ha/67호 · 농가 경영규모 : 13.6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2년 13.6ha → '15년 13.6ha · 이모작(보리) : '12년 4.3ha → '15년 4.3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2년 127 → '15년 127 · 보리 조수입(백만원) : '12년 19 → '15년 16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2년 25ha → '15년 285ha · 공동방제 : '12년 25ha → '15년 28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약제침지 · 표준생산매뉴얼에 의한 GAP실천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GAP 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 · 들녘경영체 참여 1년만에 생산자 법인화(철새와 농부들영농 조합법인)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1.0% 절감(원/10a) : '12년 724,326 → '16년 705,160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505,74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90.2%) · 육묘부터 수확까지 공동생산 체계 구축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정남진들녘공동체(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114-18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벼 이모작 평야지역(쌀 + 이모작)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30ha/70호 · 농가 경영규모 : 2.6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4.0ha → '15년 2.6ha(35% 감소) · 이모작 : '10년 4ha → '15년 4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33 → '15년 21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36ha → '15년 180ha · 공동방제 : '10년 150ha → '15년 286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축조시비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소득 다양화를 위한 답리작 확대(조사료, 찰보리)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4.6% 절감(원/10a) : '10년 583,935 → '15년 556,905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65,40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83.0%) · 답리작 확대로 소득 확대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주)솔림 농업회사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강로 447-6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3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비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23ha/125호 · 농가 경영규모 : 6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2년 0 → '15년 6ha · 이모작(보리) : '10년 0 → '15년 8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 '15년 70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2년 68ha → '15년 130ha · 공동방제 : '12년 180ha → '15년 23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실천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확대 : '12년 15% → '15년 67%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1.0% 절감(원/10a) : '12년 550,233 → '15년 599,731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790,987원(통계청 평균소득의 141%)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주)솔림 농업회사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함평군 신광면 수정길 48-12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3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비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23ha/125호 · 농가 경영규모 : 21.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2년 14.1ha → '15년 21.7ha(54%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9년 30 → '15년 35(17%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2년 100ha → '15년 210ha · 공동방제 : '12년 202ha → '15년 223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친환경(무농약) 실천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확대 : '12년 15% → '15년 67%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0% 절감(원/10a) : '12년 655,425 → '15년 648,616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730,207(통계청 평균소득의 130%)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해창만쌀(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2639-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0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이모작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64/162호 · 농가 경영규모 : 12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9년 3a → '15년 12(300% 증가) · 이모작(청보리) : '09년 5ha → '15년 20ha(300%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9년 29 → '15년 115(296% 증가) · 청보리 조수입(백만원) : '09년 13 → '15년 60(361%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9년 76ha → '15년 130ha · 공동방제 : '09년 135ha → '15년 16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천연농자재 자가제조 사용(친환경농법 실천)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전체 생산과정이 표준생산매뉴얼에 의한 공동농작업으로 이루어 져 품질 균일화 및 농자재 비용 80% 절감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8.2% 절감(원/10a) : '09년 722,616 → '16년 663,480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10a당 소득 : 482,527(통계청 평균소득의 86%)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해창만쌀(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2639-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0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이모작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64/162호 · 농가 경영규모 : 14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9년 4ha → '15년 14ha(250% 증가) · 이모작(IR) : '09년 1ha → '15년 12ha(1100%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9년 36 → '15년 126(250% 증가) · 조사료 조수입(백만원) : '09년 3 → '15년 34(1030%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09년 45ha → '15년 87ha · 공동방제 : '09년 87ha → '15년 164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사용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농자재 자가제조로 비용 80% 절감 · 공동농작업 확대 '09 5% → '15년 87%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9.1% 절감(원/10a) : '09년 724,156 → '16년 658,483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10a당 소득 : 427,423(통계청 평균소득의 76%)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누리쌀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화순군 고독면 발한실길 44-2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원예 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50ha/130호 · 농가 경영규모 : 50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55ha → '15년 50ha(9% 감소) · 이모작(청보리) : '14년 30ha → '15년 0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250 → '15년 281(12%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56ha → '15년 120ha · 공동방제 : '14년 150ha → '15년 15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표준생산매뉴얼에 의한 공동농작업 준수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생산, 판매 등 공동경영 확대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0.9% 절감(원/10a) : '14년 621,890 → '15년 616,234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185,995(통계청 평균소득의 33%)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참두레(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한진길 63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45ha/150호 · 농가 경영규모 : 6.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6.7ha → '15년 6.7ha · 이모작(청보리) : '14년 2.4ha → '15년 2.4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17 → '15년 18(6% 증가) · 맥류 조수입(백만원) : '14년 8, 양파 조수입(백만원) '14년 28 · 절임배추 : '14년 100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74ha → '15년 116ha · 공동방제 : '14년 180ha → '15년 245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약제 침지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확대 : '14년 45% → '15년 75%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5.8% 절감(원/10a) : '09년 671,747 → '15년 632,691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10a당 소득 : 350,375(통계청 평균소득의 62%)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하모니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영암군 덕진면 선암길 18-8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27ha/114명 · 농가 경영규모 : 24.4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24.4ha → '15년 24.4ha · 녹비작물 : '14년 5ha → '15년 10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9년 96 → '15년 98(2%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66ha → '15년 97ha · 공동방제 : '14년 145ha → '15년 227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약제소독 · 윤작체계 도입(녹비작물 재배)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공동농작업 확대 : '14년 66% → 15년 86%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2.0% 절감(원/10a) : '09년 684,182 → '15년 670,542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31.933(통계청 평균소득의 77%)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빛가람(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838-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240ha/55호 · 농가 경영규모 : 15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15ha → '15년 15ha · 이모작(청보리) : '10년 20ha → '15년 50ha(150% 증가) · 이모작(보리) : '10년 0 → '15년 10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230 → '15년 268(16% 증가) · 맥류 조수입(백만원) : '10년 37 → '15년 79(113% 증가) · 절임배추(백만원) : '10년 100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84ha → '15년 156ha · 공동방제 : '10년 190ha → '15년 24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공동농작업 · 온탕침법 + 약제소독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소득 다양화를 위한 답리작 확대(조사료, 찰보리) · 공동 농작업 확대 : '10년 33% → '15년 89%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3.8% 절감(원/10a) : '10년 632,970 → '15년 608,893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393,754(통계청 평균소득의 70%)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주)미농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장고길 53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섬)
경영유형	· 쌀 + 맥류생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00ha/50호 · 농가 경영규모 : 12.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12.7ha → '15년 12.7ha · 이모작(보리) : '10년 2ha → '15년 5ha(150%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65 → '15년 65 · 보리 조수입(백만원) : '10년 10 → '15년 25(150% 증가) · 원예 조수입(백만원) : '10년 8 → '15년 8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34ha → '15년 76ha · 공동방제 : '10년 100ha → '15년 10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 + 약제침지, 하우스 녹화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확대 : '10년 15% → '15년 66%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9% 절감(원/10a) : '10년 617,738 → '15년 605,763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노동시간 절감으로 시설딸기 등 발작물 등에 노동력 투입

3. 다각화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영실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경남 산청군 신차로 318번길 1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0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으로 논벼 외에 시설 딸기 등 원예와 축산이 어우러진 복합영농 지역임
경영유형	· 중산간 복합영농지역 (쌀 + 이모작 + 원예 + 축산)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82ha/131호 · 농가 경영규모 : 33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9년 20ha → '15년 33ha(65% 증가) · 이모작(청보리) : '09년 20ha → '15년 40ha(100% 증가) · 경영의 다각화 측면 : 경축순환 및 한우 판매장 운영 등 사업 확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09년 165 → '15년 273(65% 증가) · 청보리 조수입(백만원) : '09년 45 → '15년 90(100%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160ha) : 육묘비 12백만원, 노동시간 4,200시간 절감 · 공동방제(350ha) : 방제비 1.1백만원, 노동시간 5,000시간 절감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경축순환농업 추진으로 영농자원 이용 효율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소득 다양화를 위한 답리작 확대(조사료, 맥주보리) · 생산에서 가공·유통 다각화 체계 구축(한우프라자 운영,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점 운영)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1.0% 절감(원/10a) : '09년 753,855 → '16년 670,644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00,909원(통계청 평균소득의 71.4%) · 노동시간 절감으로 시설딸기 등 발작물 등에 노동력 투입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장척쌀유통단지 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길 79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09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준산간 평야지역으로 최근 시설원예(수박, 오이)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영유형	· 쌀+쌀 가공판매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50ha/82호 · 농가 경영규모 : 50.7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08년 24.0ha → '15년 50.7ha(111%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공동육묘에서 '08년(2,000만원) → '15년(5,000) 소득 증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육묘부터 건조까지 공동농작업 실행 및 공동 가공·판매 체계 구축 · 공동육묘 : '08년 30,000장 → '15년 80,000장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온탕침법+약제침지, 생육조건에 따른 차별화된 시비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육묘 확대를 통해 연간소득 5,000만원 소득 증대 · 주변 시설원예 농가들의 육묘 싹틔우기 30,000장 실시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4.9% 절감(원/10a) : '08년 894,992 → '15년 761,975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374,479원(통계청 평균소득의 66.8%)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들체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아산시 선장면 신문길 49-1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

경영실태	
지역특성	· 전형적인 평야 논벼 단작 지대
경영유형	· 가공용쌀 재배 단지(CJ 제일제당 납품)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5년)176ha/81호 ('16년)198ha/100호 · 농가 경영규모 : 8.0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7.0ha → '15년 8.0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가공용쌀 생산: ('14년) 67백만원 → ('15년)84백만원, 17백만원 증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방제기를 임대하여 공동방제 · 개별소형공동육묘장을 통하여 공동육묘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쌀가공업체(CJ제일제당)와 생산조직(아산농업기술센터)간 계약 재배를 통한 계열화사업으로 수량증대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가공용쌀 생산 : '14년 1,690백만원 → '15년 1,850백만원으로 160백만원 매출액 증대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4.5% 절감(원/10a) : '14년 928,072 → '15년 886,758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68,271원(통계청 평균소득의 83.5%) · 가공용쌀 수량 증대로 소득증대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주) 우석 F&B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암로244-27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쌀 가공·판매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20ha/62호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120ha → '15년 120ha · 이모작(조사료) : '10년 50ha → '15년 50ha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1,183 → '15년 1,183 · 쌀 가공·판매(백만원) : '10년 817 → '15년 817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35ha → '15년 85ha · 공동방제 : '10년 120ha → '15년 20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소식재배 및 다양한 육묘기술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모든 생산과정 표준매뉴얼에 의한 공동생산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1.0% 절감(원/10a) : '10년 711,998 → '15년 689,577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511,875원(통계청 평균소득의 91%)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농업회사법인 오마들녘(주)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고흥군 도덕면 오마안길 28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1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역
경영유형	· 쌀 + 쌀 가공·판매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10ha/50호 · 농가 경영규모 : 16.5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0년 6.5ha → '15년 16.5ha(153%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0년 35 → '15년 80(128%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0년 54ha → '15년 86ha · 공동방제 : '10년 110ha → '15년 11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건전모 육묘기술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공동농작업 확대 : '10년 25% → '16년 95%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6% 절감(원/10a) : '10년 636,198 → '16년 626,131
경영성과 요인	· 10a당 소득 : 476,293원(통계청 평균소득의 84.9%)

경영체 현황			
들녘 경영체명	강진영농조합법인	농가명 (연락처)	
주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203	들녘 경영체 선정년도	2015년

경영실태	
지역특성	· 벼 이모작 평야지대
경영유형	· 쌀 + 쌀 가공·판매, 이모작
경영규모	· 들녘경영체 규모 : 180ha/70호 · 농가 경영규모 : 10ha
참여 전후의 변화내용	· 경영규모 : '14년 10ha → '15년 10ha · 이모작(보리) : '14년 20ha → '15년 40ha(100% 증가) · 이모작(귀리) : '14년 20ha → '15년 40ha(100% 증가)
사업부문 및 매출액 변화	· 쌀 조수입(백만원) : '14년 86 → '15년 86 · 이모작 (백만원) : '14년 100 → '15년 200(100% 증가) · 쌀가공(억원) : '14년 130 → '15년 135(3.8% 증가)
공동농작업의 내용 변화	· 공동육묘 : '14년 102ha → '15년 155ha · 공동방제 : '14년 180ha → '15년 180ha
영농기술의 차별화 내용	· GABA벼 생산기술

경영성과	
들녘경영체의 사업실적 변화	· 고품질쌀 표준생산 체계 구축 · 이모작 면적 증가
농가의 생산비 변화	· 생산비 14.8% 절감(원/10a) : '14년 715,961 → '16년 609,977
경영성과 요인	· 생산비 절감 · 10a당 소득 : 433,609(통계청 평균소득의 77%)

부 록 3

단계별 사업계획(예시)

□ 들녘경영체 단계별 사업계획 및 영역별 사업(예시)

- 들녘경영체를 통한 마을단위(지역단위) 적절한 사업의 개발이 조직의 비전과 지역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정임. 개별 들녘경영체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업선정과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함. 다음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들녘경영체 조합원이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범위와 서비스 개발 분야임.
-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지역(마을)단위 사업은 농산업, 자원환경 및 생활복지 분야가 있을수 있고, 지역사회 내부문제 해결과 도농상생을 통한 다각화 등 외부연결로 구분할 수 있음. 특히, 자원환경과 생활복지는 들녘경영체가 지역사회 환원하는 분야가 될 수 있음.

□ 사업의 사전준비 단계적

- 들녘경영체 사업이 단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일시적 지원사업의 단계에서 뛰어넘어 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녘경영체 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

- 1단계는 들녘단위(지역단위) 조합원 및 주민의 의향조사
 - 지역자원 조사, SWOT 분석 등을 거쳐 충실한 창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진행
- 참가자 조직단계에서 전문가 및 지원조직(단체, 협회, 지자체, 중앙정부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간의 역할 분담, 법인화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

□ 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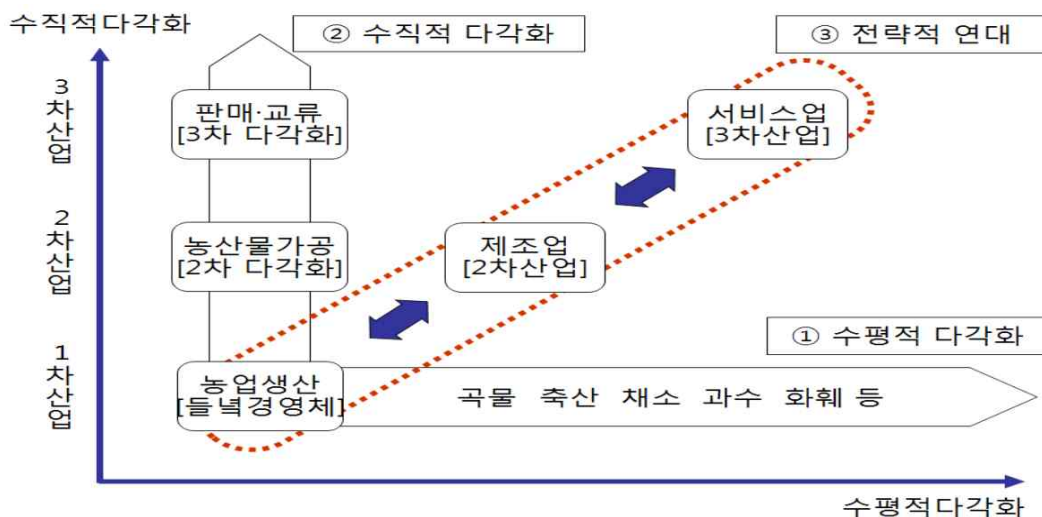
- 사업추진단계에서 컨설팅 및 인력역량 강화(참여자 및 리더그룹)
- 시설 및 장비 지원단계 및 활용방안
-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과 활용방안 검토
 - 들녘참여자 공동작업 모색
 - 법인화 단계에서 조합원 확대 및 시설 및 장비의 출자방안 검토
 -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기록 및 배당 논의
- 다각화에서는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함.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수단은 경영다각화와 상품의 지역브랜드화 등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가치를 향상
- 들녘경영체 중심의 다각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내 이종산업과의 연대, 도농 교류와 직거래 등을 활용

□ 사업평가

- 들녘경영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지역사회의 과제해결, 주민참여 유도과 지역과제 해결, 지역자원 관리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평가 등 양면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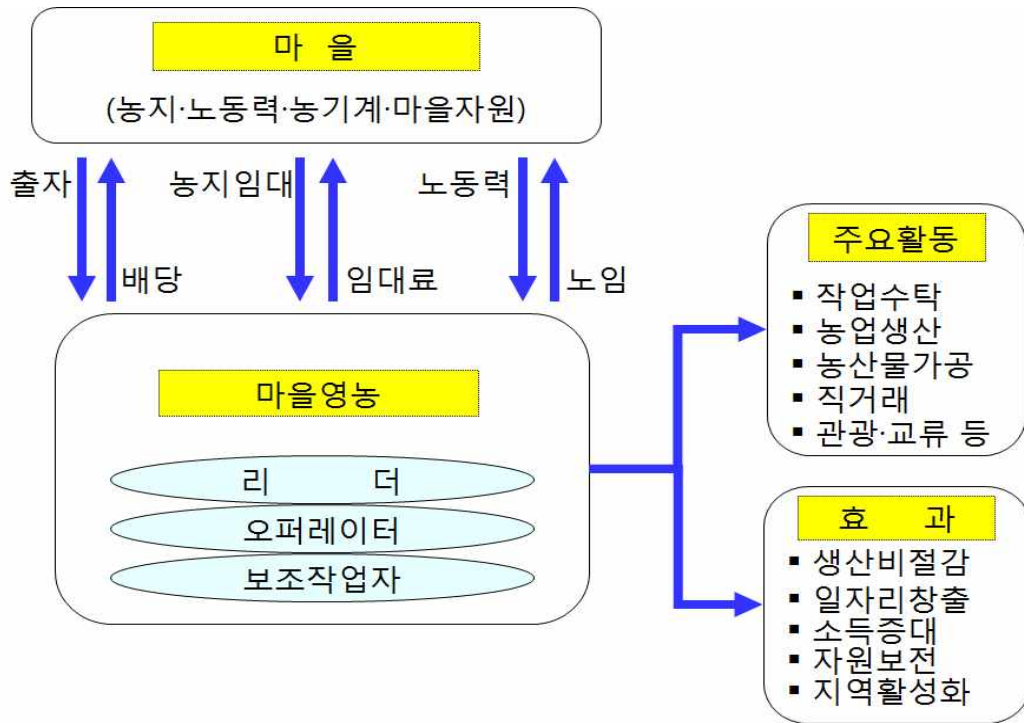
- 사업 평가는 들녘경영체 결성 목적에 근거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경제적 성과 향상(효율성), 사회적 서비스의 충실(공익성), 사업의 항구적인 유지(지속성) 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들녘경영체 사업 계획의 충실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
 - 지역자원의 활용도
 - 경영 성과
 - 지역사회 공헌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단계별 보조사업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와 교육사업의 기회를 부과해서 들녘단위 사업의 단계별 성장과 지속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함.

그림 1. 들녘경영체 다각화 예시



자료: 김태곤 외(2013) 재구성.

그림 2. 마을영농 예시(일본 사례)



자료: 김태곤 외,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문헌

- 김정호 외. 1998. 「쌀 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개발」. C98-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김정섭·허주녕 외.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3/3)」. R7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0. 「2010년 쌀 산업 발전 및 논 농업 다양화 대책」.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 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및 쌀 산업 발전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 연구」.
- 조가옥 외. 2012. 「지역 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전략연구원. 2013. 「논벼 재배 농가 유형별 소득분석 연구」. 농촌진흥청.
- 도원회계법인. 2010.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효과 분석」. 농림수산식품부.
- 박문호 외. 2000.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 모형과 정책방향」. C20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외. 2011.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 실태와 성과」. R65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지역농산업경영경제연구소. 2008. 「2009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용역 결과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조가옥 외. 2008. 「쌀 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양곡부.
- 조가옥 외. 2014.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장민기 외. 2010. 「논농업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 20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전망 2015」.
- 한국쌀산업진흥회편. 2013. 「쌀 관세화 대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쌀회총서 제34권. 한국쌀산업진흥회.
- 황의식 외. 2008.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P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성, 2008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포인트” Vol.11
- 농림수산성, 2014년 5월, “농업경영지원책활용가이드”
- 농림수산성, 2014년, “집락영농의 경영발전에 대해서”
- 농림수산성, 2015년 3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 농림수산성, 2015년 3월, “집락영농실태조사”
- 농림수산성, 2015년 6월, “집락영농실태조사”
- 농림수산성, 2015년,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개요」
-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3년 2월, 「집락영농 전개 하의 농업구조」 연구자료
제3호 통계분석
- 농업문제연구학회편집, 2014년 2월, 「농업문제연구-집락영농과 지역농업-」,
쓰쿠바서방
- 오노 토모아키, 2013년, “수전농업의 농가 고령화와 집락영농에의 기대”, 농림
수산정책연구소
-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 2014년, 「우량경영체사례집-농사조합법인
타넷꼬-」, 사례발표자료 포함.
-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 2014년, 「우량경영체사례집-농사조합법인
팜 오다-」